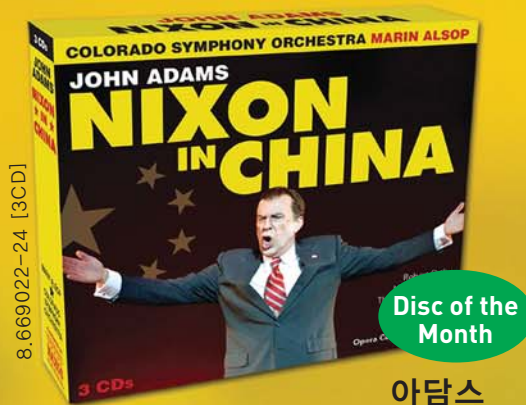


부담없는 가격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Naxos new rel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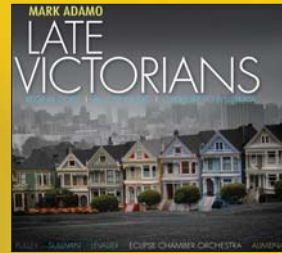


Disc of the Month

아담스
오페라 [중국의 닉슨]

여러가수들/마린 알솅/ 콜로라도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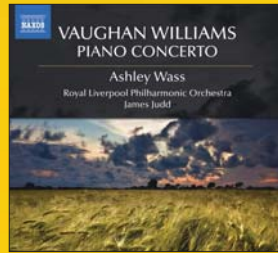
Classicstoday 10/10



8.559258

아다모:
Late Victorians, 하프협주곡
'레지나 헬리', 알코트뮤직 외

도티안 리발리어(harp)
실비아 알레나
엑클립스 챔버 오케스트라



8.572304

피아노협주곡, 영국민요모음곡
발레, 말벌 모음곡

애슐리 워스(pf)
제임스 저드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8.111349

브람스:
바이올린협주곡
모차르트:
바이올린협주곡 3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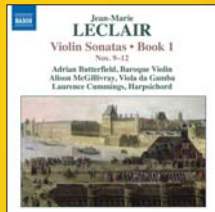
조콘다 데 비토(vn)
토마스 비첨, 파울 판 캠펀
로알 필하모닉 외



8.111005

바그너:
오페라 하이라이트
R 슈트라우스:
틸 오이렌슈피겔 외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8.570890

르클레르:
바이올린소나타
Op.1 Nos. 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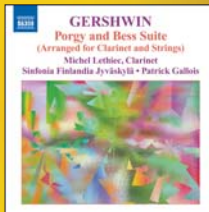
애드리언 버터필드(vn)
앨리스 맥길리브레이(vc)
로렌스 커밍스(cemb)



8.572006-07 [2CD]

JS 바흐:
하프시코드 독주를 위한
협주곡 전곡

엘리자베스 파르(cemb)



8.570939

거윈:
클라리넷과 현을 위한
음악들(포기와 베스, 파
리의 미국인 외)
미셸 레티에(cl)
패트릭 갈라와
신포니아 핀란디아



MNRCD116

The Glare

마이클 니만 & 데이빗 맥알
몬트
마이클 니만 밴드



SDG 707 [2CD]

JS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

가디너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8.571273

리스트:
피아노협주곡 1,2번,
죽음의 춤

이딜 비렛(pf)
에밀 타바코프
빌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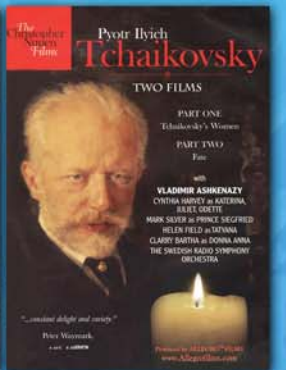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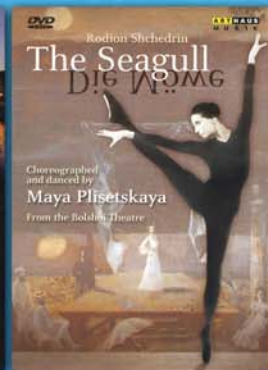
8.570150

J. 슈타미츠:
4개의 플루트 협주곡

로버트 애잇컨(fl)
도나타스 카트쿠스
세인트 크리스토퍼 챔버
오케스트라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40호 | November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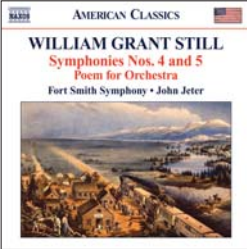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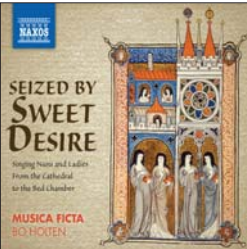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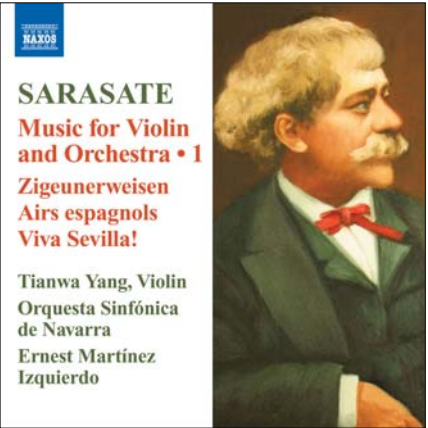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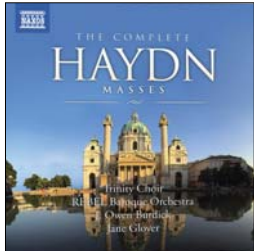
New Releases

당신의 밤과 음악 3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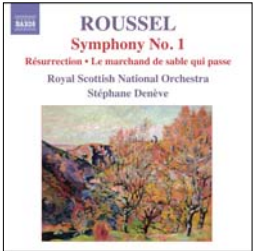
Cover Story

이 달의 주목할만한 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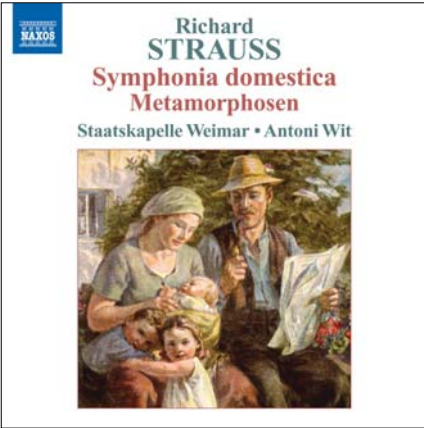
 Naxos www.naxos.com  8,572167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9번 바실리 페트렌코/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만프레드교향곡으로 2009년 그라모폰 관현악부문을 수상한 바실리 페트렌코와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의 최신보, 11번에 이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시리즈의 제2탄이다. 20세기에 완성된 교향곡의 최고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교향곡 5번과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자기자기한 작품인 교향곡 9번을 함께 수록하였다. 러시아 지휘자계보의 새로운 적통으로 각광받고 있는 페트렌코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8,570322 스벤센: 노르웨이 랩소디 1-4번, 로미오와 줄리엣, 조라하이다 비야르테 앙게스트 남 유틸란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다음으로 유명한 노르웨이 작곡가인 스벤센은 민족주의적인 악상을 로맨틱한 음악 스타일을 통해 풀어내었던 인물이다.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에 영향을 받아 완성한 4개의 노르웨이 랩소디는 이러한 작곡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차이코프스키보다 앞서서 완성된 로미오와 줄리엣, 이슬람 공주와 크리스천 기사 사이의 에피소드를 다룬 동화를 이국적인 음악으로 표현한 조라하이다를 함께 수록.  8,559603 스틸: 교향곡 4번 '토종', 5번 '서반구' 존 제터 포트 스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프로 아메리칸 작곡가들의 대부분 존경받았던 윌리엄 그랜트 스틸은 네오로맨틱한 음악을 기조로 블루스, 흑인영가, 재즈와 같은 아프로아메리칸 특유의 음악적 요소를 적절히 접목시켰었다. 그는 다섯 곡의 교향곡을 남겼는데, 본 음반에 그의 마지막 두 교향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미국인들의 혼을 그린 교향곡 4번 '토종'(Autochthonous)과 역시 미국의 위대함을 그렸던 그의 대표작인 교향곡 5번 '서반구'가 그것들이다.	 8,570948 오하나: 10현 기타를 위한 작품들 그레이엄 안소니 데빈(guitar) 북아프리카 출신의 작곡가 모리스 오나는 나르시소 예페스가 사용했던 10현 기타의 무궁한 표현 잠재력에 집중하여 독특한 스타일의 기타 작품들을 다수 완성하였다.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음악적 전통에서 소재를 찾은 티엔토, 드뷔시의 전주곡에서 영감을 얻은 모음곡 'Si le jour parait', 클래식기타와 플라멩고 기타의 전통을 적절히 조합한 'Cadran Lunaire' 등을 수록.  8,572161 멘델스존: 마니피카트, 아베 마리아 & JS 바흐: 마니피카트 예일 스쿨라 칸토름 사이먼 캐링턴 예일 클레기움 플레이어스 JS 바흐의 유명한 종교합창곡인 마니피카트는 멘델스존의 동명 작품에 큰 영향을 주었다. 멘델스존의 이 작품은 작곡가가 완성한 최초의 대편성 종교합창곡으로 이후 엘리야와 바울과 같은 걸작 오라토리오들을 낳은 원동력이 되었다. 신보는 두 작곡가의 마니피카트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같은 텍스트를 다루는 바로크 거장과 로맨틱 거장의 각기 다른 접근법을 비교해볼 수 있게 하였다.	 8,559304 라우리드센: 합창음악(영원한 빛, 마드리갈, 장미의 노래 외) 노엘 에디슨 엘로라 페스티벌 싱어즈 모던 라우리드센은 현대 미국 합창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다. 천국의 빛을 아름답게 그린 'O nata lux'는 미국의 여러 합창단들의 인기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며, 테크닉적인 측면으로 이후 엘리야와 바울과 같은 걸작 오라토리오들을 낳은 원동력이 되었다. 신보는 두 작곡가의 마니피카트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같은 텍스트를 다루는 바로크 거장과 로맨틱 거장의 각기 다른 접근법을 비교해볼 수 있게 하였다.  8,572298 미요: 사랑의 노래, 알리사, 유대의 시 캐롤 팔리(sop) 존 콘스테이블(pf) 프랑스 6인조의 한 사람인 다리우스 미요는 포레와 드뷔시, 그리고 뒤파르크의 전통을 계승했던 뛰어난 가곡 작곡가이기도 했다. 여러 시인들의 연시에 곡을 붙인 '사랑 노래' (L'Amour chante)는 이번체 최초로 레코딩되는 작품이며, 앙드레 지드의 소설에 기초한 연가곡 '알리사', '미요가 한 잡지에서 읽은 작자 미상의 시에 곡을 붙인 '유대의 시' 등을 수록.
 8,559370 아이브스: 홀리데이 심포니 발레, 예일-프린스턴 풋볼 게임 말의 오페라 합창단 제임스 싱클레어 말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트라빈스키가 아이브스 최고의 작품으로 꼽았던 교향시 '현충일'은 후일 홀리데이 심포니의 두번째 악장으로 전용되었다. 본 음반에는 그외에도 3악장(독립기념일), 4악장(추수감사절)을 함께 담았으며, 1904년의 대령난파사고에 대한 추모작인 'The General Slocum', 두 명문사학의 스포츠 전통을 그린 작품인 '예일-프린스턴 풋볼 게임' 등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174 메시앙: 미를 위한 시, 잃어버린 봉헌, 미소 안네 슈바네빌름스(sop) 윤 매르클 리옹 국립 관현악단 드뷔시와 라벨의 인상주의 관현악 시리즈로 큰 호평을 얻었던 윤 매르클과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가 메시앙의 작품세계로 들어섰다. 그리스도의 화생과 구원에 대한 진지한 관현악 묵상곡인 '잃어버린 봉헌' (Les offrandes oubliées), 부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관현악반주의 연가곡인 '미를 위한 시', 모차르트에 대한 오마주 작품인 '미소' (Un sourire)를 수록하였다.	 8,559653 후양 루오: 드라마 시어터 2-4번, 현악사중주 1번 루오 후양 퓨처 인 리버스 중국어 미국 작곡가 후양 루오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담은 두번째 음반. 18개의 맥주병으로 구성된 타악기를 비롯한 다양한 동양과 서양의 악기들의 조합을 위한 드라마 시어터 세 작품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연속성을 음악으로 표현한 현악사중주 1번 '세가지 시제'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2025 마르티누: 골디락의 동화, 안데르센 동화로부터, 메리크리스마스 외 조르조 쿠를(pf) 조르조 쿠를의 마르티누 피아노 시리즈의 7번째 음반. 수록곡의 대부분은 그동안 유실되었다고 알려졌다가 최근에 필사본에 형태로 재발견된 작품들이다. '안데르센의 동화로부터'와 '골디락스의 동화', '어린이를 위한 소품들'과 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작품들에서부터 쇼팽의 마지막 코드 발라드, 메리크리스마스, 작은 자장가, 봄, 폭스트롯, 전주곡 등의 자기자기하고 개성적인 피아노소품들로 가득하다.	 8,572265 달콤한 욕망에 사로잡혀 (레오넬, 페로랑과 중세 여성들 유시인들의 노래) 보 홀텐 무지가 픽타 중고음악과 세속음악을 불문하고 중세시대 여성음악인들의 활약은 극히 일부만 부각되어왔다. 신보는 노트르담악파(레오넬, 페로랑)작곡가들과 북프랑스 트루베르들의 작품들 중 여성의 목소리에 적합한 여러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여성 보컬 앙상블의 맑고 가벼운 가창을 통해 중세 오르가눔과 트루베르들의 사랑 노래들이 기존의 남성성에 의한 연주들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8,660224 레벨 & 프랑쿠르: 첼린도르, 신포스의 왕 & 트로페 모음곡 리안 브라운 오페라 라파에트 1745년 베르사이유궁전에서 초연되었던 오페라 발레 '첼린도르'는 평민을 사랑한 왕의 이야기라는 이 작품의 내용이 자신의 상황과 꽤나 유사했던 루이 15세의 애첩 퐁파두르 부인의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 당대 프랑스 궁정의 대표 작곡가들이었던 레벨과 프랑쿠르가 힘을 합쳤던 이 작품은 2007년 오페라 라파에트에 의해 리바이벌되면서 화제를 모았었다.	 8,572191 사라사테: 치고이네르바이젠 외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작품들 티안와 양(vn) 에르네스트 마르티네즈-이즈퀴에르도/ 나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가니니의 재래로 각광받았던 19세기 말 바이올린 비르투오조의 대명사 파블로 사라사테. 그는 자신의 현란한 테크닉을 과시하기 위해 화려한 쇼피스트들을 다수 작곡하였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치고이네르바이젠'을 비롯하여, 스페인 아리아, 미라마르, 스페인 카프리치오, 야상곡-세레나데, 비바 세비아, 블랑세 부인을 위한 판타지 등의 매력적인 쇼피스트들을 담았다.



8.508009 [8 for 6]
하이든: 미사 전집
트리너티 콰이어
J 오웬 버크, 제인 글로버
레벨 바로크 오케스트라
하이든 서거 200주기를 기념하
는 낙소스의 또 하나의 큰 선물.
작곡가가 남긴 미사 전곡(단편만
남아있는 H22/2와 진위가 불분
명한 H22/3은 제외)과 초기의
주요 종교합창곡인 스타바트 마
테르를 8장의 CD에 나누어 담
았다. 전집에 앞서 한슬러 레이
블로 발매된 바 있었던 미사 브
레비스와 체칠리아 미사는
Classicstoday.com에서 10/10
의 최고의 점수를 받기도 했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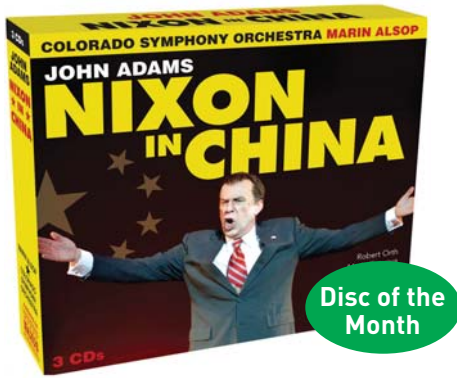
8.570323
루셀:
교향곡 1번 '숲의 시', 부활,
잠의 요정
스테판 드네브
로얄 스코티시 오케스트라
스테판 드네브/로얄 스코티시 오
케스트라의 루셀 교향곡 시리즈
의 완결작. 루셀의 첫번째 관현
악작품인 '부활'은 톨스토이의
동명소설에서 모티브를 얻어 완
성한 섬세하면서도 신비로운 분
위기의 작품이다. '잠의 요정'은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의 빛나는
관현악모음곡이며, '숲의 시'라
는 표제가 붙은 교향곡 1번은 겨
울에서 가을에 이르는 사계절 동
안의 숲의 변화를 표제적으로
표현한 4악장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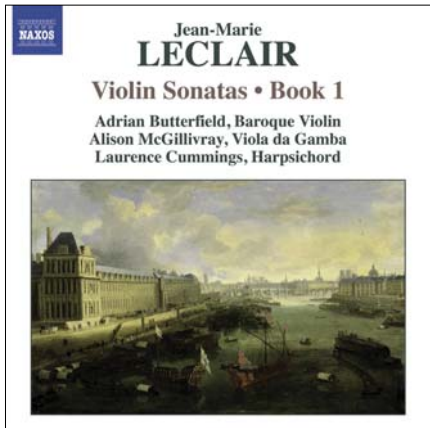
8.570895
R. 슈트라우스:
가정교향곡, 메타모르포젠
안토니 비트
바이마르 슈타츠헤펠레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되었던 알프스교향곡을 통해 독일 중
소악단의 저력을 한껏 과시했었던 바이마르 슈타츠헤펠레가 작곡가의
또 다른 교향곡 걸작인 '가정교향곡'에 도전하였다. 낙소스의 간판 안
토니 비트의 노련한 지휘는 화목한 가정생활을 재치있게 묘사한 이 작
품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든다. 드레스덴 폭격의 참상을 통절히
묘사한 걸작인 23개의 현악기를 위한 메타모르포젠이 함께 수록되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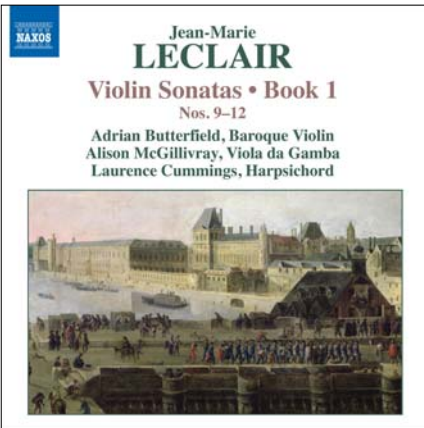
8.572006-07 [2CD]
JS 바흐:
하프시코드 독주를 위한 협주곡 전곡
엘리자베스 파르(cemb)
바이마르 시절 바흐는 비발디, 토렐리, 만프레디니, 텔레만과 같은 동시
대 이탈리아와 독일 작곡가들의 협주곡 22편을 건반독주를 위해 편곡
하였다. 엘리자베스 파르가 그중 16곡(BWV972-987)을 두 장의 CD에
나누어 담았다. 여기에 후일 트리를 콘체르토 BWV1044에 전용된 작
품인 전주곡과 푸가 BWV894가 함께 수록되었다.



8.669022-24 [3CD] Classicstoday 10/10
아담스: 오페라 <중국의 닉슨>
여러가수들
마린 알습
콜로라도 심포니 오케스트라
1972년 닉슨의 역사적인 중국방문을 3막의 오페라로 옮긴 '중국의 닉
슨'은 작곡가 존 아담스의 이름을 전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결정타
였다. 2008년 6월 오페라 콜로라도가 이 위대한 20세기 오페라 걸작
의 초연 25주년을 기념하여 이를 리바이벌했고, 그 실황이 바로 이 음
반에 수록되었다. 존 아담스의 긴밀한 동료인 마린 알습이 지휘봉을 잡
은 이 음반은 Classicstoday.com에 의해 이달의 음반에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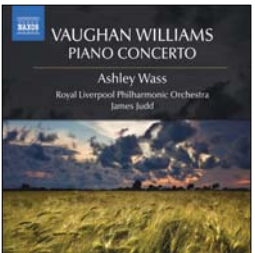
8.570888
르클레르:
바이올린소나타 Book1 Nos.1-4
아드리안 버터필드(vn)
알리스 맥길리브레이(vc)/ 로렌스 커밍스(cemb)
영국의 대표적인 시대악기 연주자들인 버터필드, 맥길리브레이, 커밍스
가 프랑스 바로크 바이올린의 거두인 르클레르의 바이올린 소나타에서
호흡을 맞추었다. 당시 프랑스를 지배하던 코렐리 스타일을 벗어버린
것으로 평가되는 이들 소나타들은 작곡가 특유의 풍부한 장식과 아름
다운 서정, 그리고 백파이프 사운드나 스코틀랜드 피들을 연상케 하는 목
가적인 분위기가 절묘하게 결합된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8.570890
르클레르:
바이올린소나타 Op.1 Nos. 9-12
애드리언 버터필드(vn)
앨리스 맥길리브레이(vc)/ 로렌스 커밍스(cemb)
영국의 대표적인 시대악기 연주자들인 버터필드, 맥길리브레이, 커밍스
가 진행중인 르클레르의 바이올린 소나타 Op.1 시리즈의 마지막 음반.
당시 프랑스를 지배하던 코렐리 스타일을 벗어버린 것으로 평가되는 이
들 소나타들은 작곡가 특유의 풍부한 장식과 아름다운 서정, 그리고 백
파이프 사운드나 스코틀랜드 피들을 연상케 하는 목가적인 분위기가 절
묘하게 결합된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8.570939
거슨:
클라리넷과 현을 위한 음악들
(포기와 베스, 파리의 미국인 외)
미셸 레티에(cil)
패트릭 갈르와
신포니아 핀란드야
클라리넷과 현악합주를 위해 편
곡된 거슨의 작품들을 담은 음
반. 작곡가의 대표작인 '포기와
베스'와 '파리의 미국인'의 하이
라이트, 피아노협주곡의 2악장,
재즈에 대한 거슨의 애정을 담은
3편의 전주곡들이 클라리넷의
감미로운 비음을 통해 매력적인
모습으로 거듭났다.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 교수이자 프라데 카
잘스 페스티벌의 음악감독인 프
랑스의 세계적인 클라리넷주자
미셸 르티에가 연주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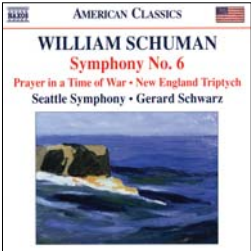
8.572304
피아노협주곡, 영국민요모음곡
발체, 말벌 모음곡,
애슐리 워스(pf)
제임스 저드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말벌'은 아테네의 법제도를 풍
자한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아리
스토파네스의 동명희곡에 대한
극부수음악으로, 특히 서곡은 본
윌리엄스의 관현악 중에서도 인
기작으로 손꼽힌다. 영국민요 모
음곡과 'The Running Set'은
영국 전통민요에 대한 작곡가의
애정이 느껴지는 작품들이다. 피
아노협주곡 역시 민요 풍의 친근
한 선율들을 담은 작품으로, 바
흐와 부조니의 영향이 함께 느껴
진다.



8.571273
리스트:
피아노협주곡 1,2번, 죽음의 춤
이딜 비렛(pf)
에밀 타바코프
빌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위대한 리스트 해석가인 라자르
베르만 이후, 우리는 리스트의
음악에 대한 특별한 친화도를 가
지고 있는 또 다른 피아노의 마
에스트로를 만나게 되었다. 그가
바로 이딜 비켓이다.
- Berliner Zeitu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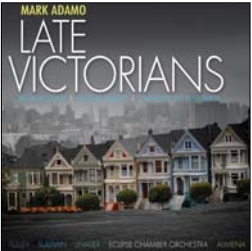


8.570150
J. 슈타미츠:
4개의 플루트협주곡
로버트 애잇킨(fl)
도나타스 카트쿠스
세인트 크리스토퍼 챔버 오케스
트라
고전 초기 교향곡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요한 슈타미츠는 14개의
플루트협주곡을 포함하여 다수
의 협주곡을 남기기도 했다. 음
반에 수록된 4개의 협주곡은 장
군들의 군대라고 불리던 만하임
궁정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빼어
난 개인기량을 감탄한 작품들로,
독주자의 화려한 기교와 오케스
트라의 짜임새있는 서포트가 멋
지게 결합된 작품들이다.



8.559625
W. 슈만:
교향곡 6번, 전시기도, 뉴잉글랜드 삼부작
제라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심포니스트인 윌리엄 슈만은 모두 10곡의 교향곡을 작곡하였다. 단악장 형식의 교향곡 6번은 변화무쌍한 리듬과 놀라운 대위법으로 무장한 작품으로, 그의 교향곡들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의 하나로 손꼽힌다. 2차대전 중의 작품인 '전시기도'와 미국 독립전쟁기의 찬송가들에 기초한 작품인 '뉴잉글랜드 삼부작'은 이 작곡가의 뜨거운 애국심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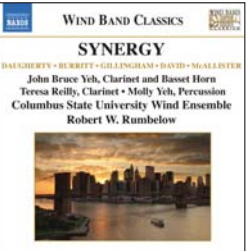
8.559258
아다모:
Late Victorians, 하프협주곡 '레지나 첼리', 알코트 뮤직 외
도티안 리발리어(harp)
실비아 알레나
액클립스 챔버 오케스트라

현존 미국을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마크 아다모는 관현악 분야에서도 극음악에 대한 자신의 감각을 훌륭히 접목시켜왔다. 반전의 테마를 다룬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에 기초한 오페라 '리시스트라타'의 서곡, 알코트의 유명한 소설에 기초한 자신의 오페라 '작은 아씨들'의 관현악 하이라이트인 알코트 뮤직, AIDS 희생자들을 기리는 'Late Victorians'와 하프협주곡 '레지나 첼리'를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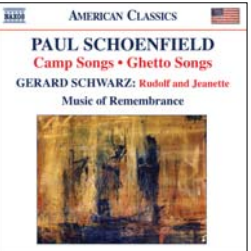
8.572226
블리스:
컬럼버스 모음곡, 27인의 표류자, 2세계의 사람들
아드리아노
슬로박 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

영국 작곡가 아서 블리스가 남긴 영화음악들을 모았다. '크리스토퍼 컬럼버스'와 '두 세계의 사람들'은 각 영화의 주제에 맞춰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독특한 리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후자에 포함된 '바라자'는 애딘셀의 바르샤바협주곡을 연상케하는 미니피아노협주곡이다. '27인의 표류자'로 번역되었던 영화 '7 waves away'에서 발췌한 3개의 관현악작품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319
Synergy - Music for Wind Band (도허티, 버릿, 길렘 외)
로버트 럼블로우
컬럼버스 주립대학 윈드 앙상블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미국 작곡가인 마이클 도허티의 클라리넷협주곡 '브루클린 다리'는 뉴욕의 유명한 다리에서 바라본 동서남북의 네 풍경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버릿의 듀오 콘체르탄테는 재즈와 대중음악적인 요소를 접목한 작품이며, 질링엄의 콘체르티노는 윈드앙상블과 네 명의 타악기주자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맥칼리스터의 '블랙독'은 레드제플린의 동명 락음악에 기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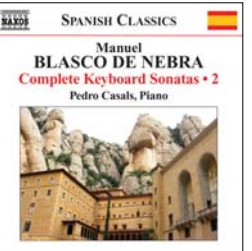
8.559641
산필드:
캠프 송, 게토 송
슈워츠: 루돌프와 지네트
Various Artists

2차대전이 남긴 미국을 음악으로 표현한 두 미국 작곡가들의 작품 셋을 함께 담은 음반. 폴 산필드의 성악곡들인 '캠프송'과 '게토송'은 각각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와 희생자가 남긴 시에 곡을 붙인 작품들이다. 지휘자로 더욱 유명한 제라드 슈워츠의 작품 '루돌프와 지네트'는 나치에 의해 살해된 작곡가의 조부모들에 대한 애도를 담은 로맨틱한 분위기의 챔버 오케스트라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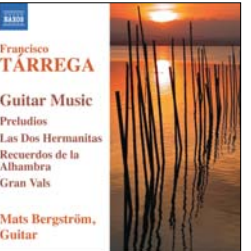
8.572077
부조니:
피아노소나타 Op.20, 전주곡과 에튀드 외
볼프 하덴(pf)

부조니 피아노작품 시리즈의 6번째 음반으로, 작곡가 초기의 두 개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리스트의 오르간 작품인 '전주곡과 에튀드'의 피아노 편곡은 두 위대한 비르투오조의 작곡 스케일이 환상적으로 접목된 작품이며, 최근까지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작품인 F단조의 소나타는 후기낭만시대의 화려한 비르투오서티로 가득 채워진 난곡이다.



8.572069
블라스코 데 네브라:
9개의 건반을 위한 소나타 페드로 카잘스(pf)

마누엘 블라스코 데 네브라(1750-1784)는 모차르트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페인의 작곡가다. 본 음반에는 몽세라트 수도원에 필사본의 형태로 전해져오는 그의 마지막 일곱 건반소나타와 더불어 워싱턴 국회도서관에 보관 중인 그의 다른 두 후기 소나타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이 작곡가의 작품들을 부활시킨 장본인인 피아니스트 페드로 카잘스의 연주로 고전시대 스페인 건반음악의 색다른 매력을 만나 보시라.



8.572365
타레가:
기타작품집 (전주곡,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외)
마츠 베리스트렘(guitar)

프란체스코 타레가는 19세기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인 마츠 베리스트렘은 타레가의 음악에 공존하는 빛과 그림자를 작곡가 자신이 사용하던 악기의 복제품을 통해 훌륭히 재현해냈다. 16개의 전주곡, 4개의 마주르카,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아랍 카프리스, 파바나, 대왈츠, 로지타, 페피타, 이사벨 등 작곡가의 대표 기타작품들을 함께 담았다.



8.572009
프랑크:
현악사중주, 피아노오중주 크리스티나 오르티즈(pf)
파인 아츠 콰텟

포레의 피아노오중주로 큰 호평을 받았던 오르티즈와 파인 아츠 콰텟이 프랑크의 실내악 걸작들에 도전하였다. 작곡가 특유의 순환형식과 교향곡에 육박하는 당당한 구성이 돋보이는 피아노오중주와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에 대한 프랑크의 경외감을 담은 작품이자 작곡가 최고 걸작 중 하나인 현악사중주 D장조를 함께 수록하였다.



8.572286
러브라:
현악사중주 2번, 1악장 피아노리오, 아베 마리아 외
마틴 로스코(pf)
찰스 다니엘스(te)
마티니 콰텟 외

영국 근현대 실내악을 통해 독보적인 성과를 구축해오고 있는 마티니 콰텟의 최신보. 베토벤 스타일의 엄정한 형식미에 자신의 독창적인 작곡기법을 담아낸 현악사중주와 세 악기의 화려한 기교의 대결이 흥미로운 피아노리오, 현악사중주 반주의 성악곡으로 스펜서의 소네트에 곡을 붙인 아모레티 등을 수록하였다. 르네상스, 바로크 종교음악에서 맹활약 중인 테너 찰스 다니엘스의 미성이 빛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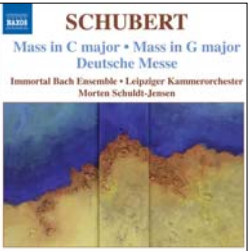
8.572255
신당: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vol.2
헨닝 크라게루트(vn)
크리스티안 일레 하드란트(pf)

크리스티안 신당은 노르웨이 출신으로는 그리그 다음으로 유명한 작곡가다. 본 음반에 수록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은 북구 특유의 감상적인 선율미가 돋보이는 전형적인 로맨틱 소품들이다. 그리그의 소나타와 시벨리우스/신당의 협주곡으로 호평을 받았던 노르웨이의 기대주 헨닝 크라게루트의 뛰어난 표현력과 1744년 과르네리 델 제수의 매력적인 사운드가 작품들의 로맨틱한 시정을 한결 돋보이게 한다.



8.572407
영국 비올라
(블리스, 델리어스, 브리지의 비올라를 위한 작품들)
에니코 마자르(va)
타바시 이마이(pf)

비올라를 위한 영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담은 음반. 비올라의 음울하고도 섬세한 소노리티는 바이올린과 첼로의 위세에 눌려 지금까지 과소평가되어왔다. 스스로 뛰어난 비올라연주자였던 브리지는 이 악기를 위해 멋진 독주작품인 알레그로 아파소나토와 펜시iero를 남겼다. 그리고 세레나데와 추억, 곤돌리에라와 같은 자신의 다른 작품들도 비올라를 위해 편곡하였다. 여기에 델리어스와 블리스의 비올라소나타를 함께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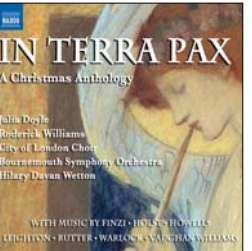
8.570764
슈베르트:
미사 2,4번, 독일미사
이모탈 바흐 앙상블
모르텐 솔트 엑센
라이프치히 챔버 오케스트라

슈베르트는 꼬마 때부터 변성기 때까지 성가대원으로 활동했던 만큼 미사와 같은 종교음악에도 정통했었다. 1815년에 작곡된 미사 2번과 이듬해의 미사 4번은 모차르트의 전례를 충실히 따른 작품들로, 가곡 작곡가로서의 천부적인 선율감각 또한 작품 속에 자연스레 융화되어있다. 독일미사 D872는 각 미사전례에 적합한 독일어 회중찬송가들로 구성된 독특한 종교합창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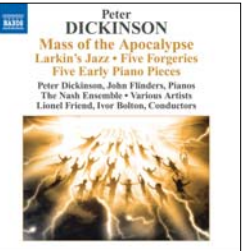
8.572110
슈베르트:
파트 송 Vol.3
Various Artists

베렌라이트의 신 도이치 슈베르트 리트에디션에 의한 낙소스의 슈베르트 가곡 시리즈의 34번째 음반으로 세번째 파트송 음반이다. 남성앙상블을 위한 슈베르트 파트송들은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누려왔다. 단순함과 정교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그의 파트송들을 이 시리즈의 대표가수들은 마르쿠스 새퍼 마르쿠스 올만, 토마스 바우어 등의 멋진 앙상블로 만난다.



8.572102
In Terra Pax
(크리스마스 앤솔로지)
시티 오브 런던 콰이어
힐러리 더번 웨튼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영국 유명작곡가들의 아름다운 캐롤들을 수록한 음반. 홀스트의 '크리스마스'를 비롯하여, 본 윌리엄스의 4개의 거울철의 민요, 러터의 'what sweeter music', 하웰스의 '티없는 장미', 핀치의 'In tera pax', 레이턴의 '성탄 찬가', 워락 '3개의 캐롤'과 같은 영국의 내로라하는 종교합창곡 거장들의 아름다운 성탄음악들이 빼곡히 수록된 매력만점의 시즌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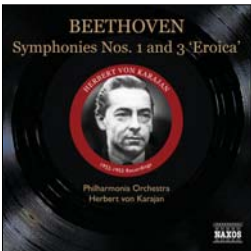
8.572287
딕킨슨:
게시록 미사, 5개의 모조품, 라킨의 재즈 외
Various Artists

피터 딕킨슨의 음악은 대중음악과 클래식이 교묘히 결합되어있다. 게시록에 나오는 새천국의 비전을 전통적인 전례 텍스트로 표현한 게시록 미사, 폴랑, 힌데미트, 스트라빈스키, 델리어스, 버르토크의 스타일을 재치있게 패러디한 5개의 모조품, 영국의 시인이자 재즈평론가인 필립 라킨을 위한 작품인 '라킨의 재즈'에서는 라킨이 좋아했던 미국 재즈 뮤지션 시드니 베케트의 음악을 인용하였다.



Naxos Historical

www.naxos.com



8.111339
베토벤:
교향곡 1번, 3번 '에로리카'
(1952-53년 녹음)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1950년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첫 베토벤 교향곡 사이클에 포함되었던 바로 그 연주들이다. 카라얀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완벽한 밸런스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수연으로 반세기 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빛이 바래지 않았다. 복각의 귀재 마크 오버트 손의 마이다스 터치가 이 역사적인 명연에 또 다른 생명력을 부여하였다.



8.111342
브람스:
독일 레퀴엠 (1955년 녹음)
엘리자베트 그뤼머(sop)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br)
루돌프 캠페
베를린 필
1955년 첫 발매 당시 그라모폰으로부터 '홀륭히 레코딩된 가치 있는 연주, 그뤼머는 아름다운 톤과 깊은 감성을 담은 노래를 들려주며, 피셔디스카우는 자신의 파트에서 풍부한 표현력과 높은 음악성을 보여준다'라는 호평을 받았었던 루돌프 캠페의 독일 레퀴엠이 마크 오버트 손의 복각을 통해 부활하였다.



8.111349
브람스:
바이올린협주곡
모차르트:
바이올린협주곡 3번
조콘다 데 비토(vn)
토마스 비첨, 파울 판 캠펜
로얄 필하모닉 외
조콘다 데 비토는 20세기 중반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바이올린의 여걸 중 한 사람이었다. 1941년 파울 판 캠펜과 협연한 브람스의 바이올린협주곡에서 이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풍부한 톤과 넉넉한 비브라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1949년 토마스 비첨과 협연한 기록인 모차르트의 바이올린협주곡 3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8.111005
바그너: 오페라 하이라이트
R 슈트라우스: 틸 오이겐슈피겔 외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푸르트벵글러 초기 레코딩 시리즈의 4번째 음반. 1930년 녹음인 바그너의 로엔그린 1막 전주곡과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 브람스의 헝가리춤곡 1,10번, R 슈트라우스의 틸오이겐슈피겔, 그리고 1933년 녹음인 바그너의 신들의 황혼 중 지크프리트의 장송행진곡, 1936년 녹음인 J 슈트라우스의 박쥐 서곡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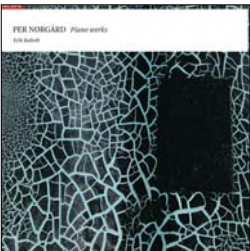
8.112053
크라이슬러 레코딩 전집 Vol.1
바흐, 차이코프스키, 스메타나, 드보르작, 마스네, 크라이슬러의 바이올린 소품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음반들은 레코딩 역사의 여명기였던 그 당시에도 백만장 이상의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음악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았었다. 본 음반에는 1904년부터 1910년 사이 크라이슬러가 녹음한 다양한 소품들이 수록되었다. G 선상의 아리아, 스와니강, 빈 카프리스, 유모레스크, 타이스의 명상곡,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헝가리 춤곡 5번, 코렐리 주제의 변주곡, 악흥의 순간, 라모의 탕부랭 등을 수록.

DACAPO Dacapo

www.dacapo-records.dk



6.220601 [Hybrid-SACD]
카페 비엔나
(리코더와 기타를 위한 로맨틱 소품들)
미칼라 페트리(recorder)
라스 한니발(guitar)
10월 18일 내한공연을 했던 리코더의 여왕 미칼라 페트리의 최신보. 남편 라스 한니발의 기타 반주와 더불어 19세기 빈에서 유행하던 아가자기한 소품들을 선보인다. 줄리아니의 그랑 듀엣 콘체르탄테, 카롤리의 영국 국가에 의한 판타지, 쿠프너의 프랑스 국가에 의한 판타지, 샤인디엔슈트의 오스트리아 민요에 의한 변주곡, 마이제더의 베토벤과 로시니 주제의 포푸리, 베토벤의 두 소나티나 등등 리코더와 기타가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소노리티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8.226089
뇌르고르:
피아노 작품집
에릭 칼토프트(pf)
독창적인 음악적 개성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덴마크 작곡가 페르 뇌르고르의 대표 피아노 작품들을 엄선하였다. '콘서트의 동물들'은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에 비견할 만한 유머러스한 작품으로, 거북과 물총새의 코믹한 탱고, 비틀즈의 블랙버드를 인용한 '폴이 새를 만나다' 등의 재치있는 악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지인들의 캐릭터를 음악으로 표현한 아홉 친구들, 단편 1-4, 9개의 연습곡, 4개의 스케치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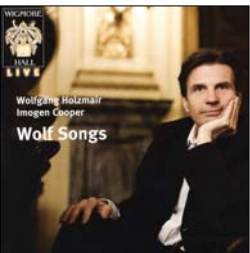


8.226542
루더스:
기타작품집
예스퍼 시베백(guitar)
키키 브랜트(sop)
양상블 핀
파울 루더스는 중세 스타일에서 포스트 시리얼리즘까지 다양한 음악사조들을 자신만의 색채로 담아내고 있는 덴마크의 현존 작곡가다. 기타를 위한 이 작곡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담았다. 기타 독주곡인 성가 모음곡, 샤콘느, 아르곤, 기타와 흥키통키 피아노 반주의 성악곡인 페스트 송,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의 유명한 선율에 기초한 양상블 작품인 'Diferencias', 중세 론도 풍의 작품인 '론도' 등을 수록.



Wigmore Hall Live Series

www.wigmore-hall.org.uk



WHLive0029
볼프: 리트
볼프강 홀츠마이어(br)
이모겐 쿠퍼(pf)
이 시대를 대표하는 리트 가수인 바리톤 볼프강 홀츠마이어와 독주와 반주 양분야 모두에서 맹활약 중인 피아니스트 이모겐 쿠퍼가 만났다. 2008년 2월 19일 위그모어 홀에서 있었던 실황으로 뱌리케의 시에 곡을 붙인 볼프의 53편의 가곡들 중에서 26곡을 골라 프로그램을 꾸렸다. 리트 애호가라면 홀츠마이어의 부드러운 미성과 쿠퍼의 다정다감한 반주가 만들어내는 멋진 시너지를 놓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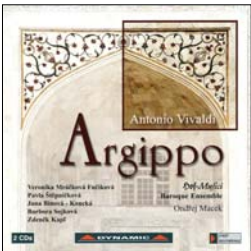


WHLive0030
슈베르트:
피아노소나타 D.840 & 959
조나선 비스(pf)
EMI를 통해 발매되었던 슈만 피아노작품집과 베토벤 소나타로 각각 디아파손 금상과 에디슨상을 수상했던 미국의 신예 피아니스트 조나선 비스의 2009년 5월 12일 위그모어홀 리사이틀 실황. 슈베르트가 만년에 남긴 대작인 D.959와 미완성소나타인 D.840 그리고 쿨락의 개성적인 두 소품으로 리사이틀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였다. 이 연주자의 자연스럽고도 천부적인 음악성과 잘 컨트롤된 기교를 생생하게 전달된다.



Dyna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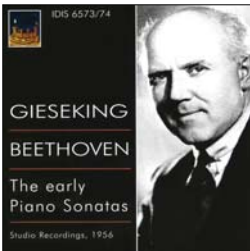
www.dynamic.it



CDS626/1-2 [2CD]

비발디:
오페라 <아르지포>
푸치코바, 슈테니츠코바 외
온드레이 마체
호프무지치

3막의 오페라 <아르지포>는 2006년 체코의 지휘자 겸 음악학자 온드레이 마체에 의해 재발견된 작품이다. 작품의 2/3정도만 발견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작곡가의 다른 작품들을 재로로 마체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인도 술탄의 궁정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배신의 드라마를 담은 이 오페라는 작곡가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과 발랄한 악상들로 가득 채워져있다. 본 음반은 재구성된 이 작품의 세계 초연 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IDIS6573/74 [2CD]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1-8번
발터 기제킹(pf)

1956년 발터 기제킹은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전곡녹음을 위해 런던으로 향하나, 도중에 갑작스런 발병과 때 이른 그의 죽음으로 이 프로젝트는 미완성으로 끝나고 만다. 본 음반은 당시 녹음이 완료되었던 초기 소나타 8작품을 2장의 CD에 나누어 수록한 것으로, 화려한 테크닉과 섬세한 서정을 겸비했던 위대한 피아니스트의 마지막 열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IDIS6576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레어 레코딩 Vo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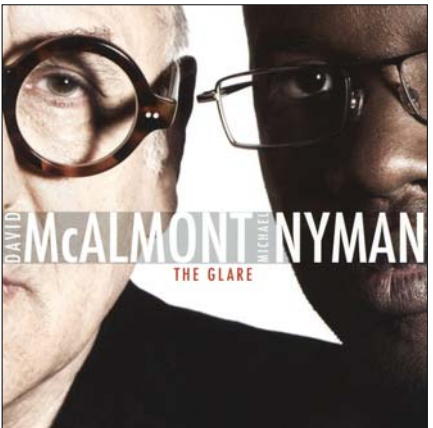
다울랜드, 바흐, 헨델, 글루크, 모차르트, 슈베르트, 비제, 슈트라우스, 푸치니 외
2차대전 직후 슈바르츠코프가 남겼던 희귀 음원들을 담았다. 그루버의 '고요한 밤', 슈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푸치니의 '내 이름은 미미', '다울랜드의 'Come again', 바흐의 'Bist du mir'와 'soll denn der Pales Offer', 슈베르트의 가곡들, 그리고 4곡의 독일민요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위대한 가수의 고품격 음성을 만날 수 있다.

MN Records

www.mnrecords.com

MN Records는

칸느 영화제 대상수상작인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 <피아노>로
국제적인 영화음악작곡가로 급부상한
영국 작곡가 마이클 니만이 설립한
독립 레이블입니다. 신보는 물론
그간 데카와 EMI를 통해 선보였던
니만의 대표적인 명반들 역시
앞으로 MN 레코드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MNRCD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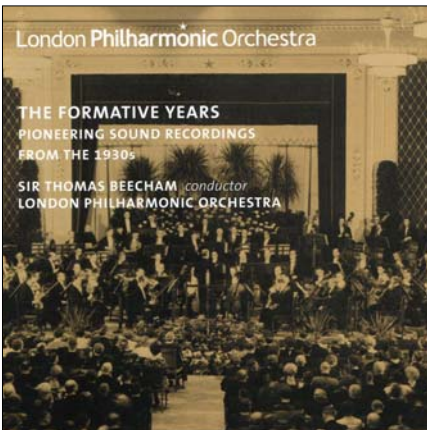
The Glare
마이클 니만 & 데이빗 맥알몬트
마이클 니만 밴드

데이빗 맥알몬트는 가디언지로부터 '카멜레온과도 같은 목소리'라는 평가를 받았던 영국의 보컬 아티스트이다. 맥알몬트의 변화무쌍한 보컬과 박력과 서정의 간극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마이클 니만 특유의 드라마틱한 음악이 결합되어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크로스오버 음반을 완성시켰다. 발매와 동시에 영국 클래식음악계와 대중음악계 양쪽 모두를 흔들 어놓은 마이클 니만의 최신보를 만나보시라.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

www.lpo.co.uk



LPO-0040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주피터' 외 (30년대 극초기 스테레오 녹음 수록)
토마스 비첨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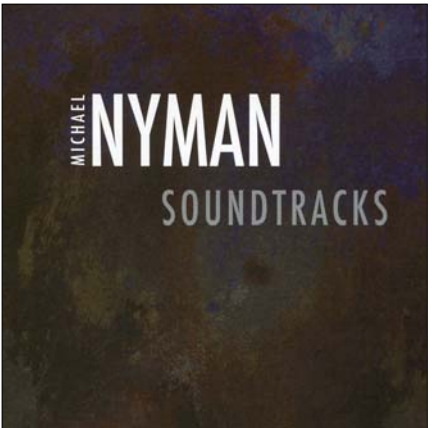
레코딩 역사의 두 신기원을 기록한 음반. 1934년 에비로드에서 녹음된 주피터 교향곡은 모노 전곡 녹음과 더불어 16분 분량의 스테레오 테스트 녹음이 함께 수록되었다. 상용화되기 무려 20여년 전의 극초기 스테레오를 접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1936년 독일 공연 실황인 모차르트 교향곡 39번과 델리우스, 린스키코르사코프의 작품들은 당시 혁명적인 발명품이었던 테이프 녹음이 이루어졌다.



MNRCD 201 [3 for 1.5]

Micheal Nyman Songs
6 Celian Songs + Acts of Beauty + 8 Lust Songs

마이클 니만의 대표 성악곡 음반 세 장을 함께 담은 박스. 폴 셀란의 시에 곡을 붙인 6개의 노래는 우테 램퍼의 노래로 너무나 유명해진 작품들. 본 박스에는 메조소프라노 힐러리 섬머즈가 보다 클래식하게 연주한 2005년의 리바이벌이 수록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시인 아레티노의 노골적인 남성상열지사들에 곡을 붙인 8개의 욕정의 노래와 중세와 현대의 시각에서 바라본 심미안에 대한 흥미로운 텍스트들에 곡을 붙인 'Acts of Beauty' 등을 수록.



MNRCD 202 [3 for 1.5]

Micheal Nyman Soundtracks
The Piano + the Libertine + Nyman/ Greenaway Revisited

마이클 니만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주었던 제인 캠피언 감독의 폐미 니즘 영화 '피아노'의 사운드트랙을 2005년에 재녹음한 음반과 니만의 오랜 동반자 피터 그리너웨이 감독과의 공동작업이었던 '프로스페로의 서재',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와 연인', '영국식 정원 살인사건', '차레로 역사시키기' 등에서 엄정한 베스트 사운드트랙음반, 그리고 살인마 잭 더 리퍼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조니 뎁 주연의 2004년 영화 '리버틴'의 영화음악음반 등의 세 음반을 하나의 박스에 담았다.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MD&G]

www.mdg.de



309 15822 [5 for 3.5]

텔레만: 협주곡과 실내악
무지카 알타 리파

- CD1: 소나타 TWV43:F1, 협주곡 TWV51:C1, 서곡 TWV55:fis, 4중주 TWV43:g4, 협주곡 TWV51:G9
CD2: 협주곡 TWV43:d2, 협주곡 TWV52:F1, 소나타 TWV44:32, 소나타 TWV41:D6, 서곡 TWV55:h4
CD3: 협주곡 TWV43:D4, 실내협주곡 TWV43:g3, 소나티나 TWV41:c2, 서곡 TWV55:F2, 소나티나 TWV41:a4, 코렐리풍 소나타 TWV42:h3
CD4: 협주곡 TWV43:G5, 서곡 TWV55:E2, 협주곡 TWV52:B1, 소나타 TWV41:D1, 협주곡 TWV43:a3
CD5: 협주곡 TWV43:A4, 소나타 TWV42:d10, 서곡 TWV55:g8, 사중주 TWV43:G6, 소나타 TWV40:203, 파르티타 TWV41:e1

지금까지 발매된 다섯 장의 무지카 알타 리파의 텔레만 작품집이 박스로 합본되었다. 트리오소나타, 협주곡, 사중주, 서곡(관현악모음곡) 등의 다양한 음악장르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당대의 코스모폴리탄으로 불렸던 텔레만의 다채로운 음악세계를 되살려낸 무지카 알타 리파의 산뜻한 연주가 바로크 음악 애호가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줄 것이다. 2004년 Echo Klassik수상작(CD1), Repertoire 10점(CD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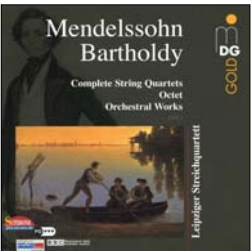
316 1580-2 [9 for 6]

비에르네: 오르간 작품 전집

벤 판 오스텐 (오르간)

- CD1: 교향곡 1번/ CD2: 교향곡 2, 3번
CD3: 교향곡 4, 6번/ CD4: 교향곡 5번
CD5, 6: 24개의 판타지 소품
CD7: 미사 바스, 24개의 자유형식 소품 중 1권
CD8: 24개의 자유형식 소품 중 2권, 초기작품들
CD9: 죽은자를 위한 미사 바스, 3개의 죽음연주, 3부작

비도르의 제자였으며, 뒤프레의 친구였던 루이 비에르네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연주와 작곡 양면 모두에서 프랑스 오르간음악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가 남긴 6편의 오르간 교향곡 전곡과 24개의 판타지 소품, 24개의 자유형식의 소품 등을 포함하여 작곡가의 오르간작품 전체를 담은 벤 판 오스텐의 이 시리즈는 독일비평가협회상, 르 몽드 드 라 무지크 CHOC, 무지카 추천음반, 디아파송 금상, 펍권가이드 *** 등의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307 1571-2 [5 for 3.5]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전집, 8중주, 관현악편곡

라이프치히 현악사중주단

- CD1: 현악사중주 Op.13 & Op.12
CD2: 현악사중주 Op.44-1, 44-2, 푸가, 카프리치오
CD3: 현악사중주 Op.44-3, Op.80, 스케르초, 주제와 변주
CD4: 8중주 Op.20, 현악사중주(1823)
CD5: 핑갈의 동굴 서곡, 교향곡 1번 & 5번, 루이 블라스 (실내악 편곡)

실내악의 명가 MD&G의 간판 앙상블인 라이프치히 퀸텟이 완결한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전집이 박스로 합본 되었다. 작곡가가 남긴 7편의 현악사중주와 현악팔중주, 그리고 현악사중주 편성을 위한 소품들인 주제와 변주, 스케르초, 카프리치오, 푸가가 수록되었고, 마지막 CD에는 실내악 편성으로 편곡된 교향곡 1,5번과 핑갈의 동굴, 루이 블라스 서곡이 수록되었다.

펍권가이드***,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스트라드 추천음반, 피치카토 추천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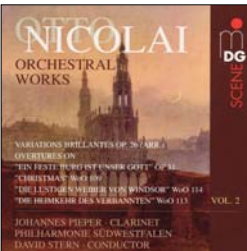


341 1310-2

모차르트: 건반작품전집 Vol.10

지그베르트 람페(하프시코드, 클라비코드, 포르테피아노)

다양한 고 건반악기들을 동원하며 진행중인 지그베르트 람페의 모차르트 건반작품 시리즈의 10번째 음반. 소나타 KV.11은 바이올린과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로 알려져있지만, 본 음반에서는 최초로 하프시코드 독주의 버전으로 수록되었다. 소나타 KV.279는 클라비코드의 아담한 사운드로 담았다. 프랑스 유행가 '아름다운 프랑스와스'에 의한 12개의 변주곡과 사르티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루돌프 체르닌 백작을 위한 4개의 콩트르당스 등을 수록.



601 1268-2

니콜라이: 관현악작품집 Vol.2

요하네스 피에페(클라리넷)

데이비드 스텐

필하모니 쥐드베스트팔렌

니콜라이는 '원자의 유쾌한 아낙네들' 한 작품만으로 기억되지만, 본 신보에 수록된 관현악작품들은 그 역시 독일낭만음악의 적자였음을 반증한다. 코랄 '내 주는 강한 성이요'와 '높은 하늘에서 왔도다'의 선율을 각각 활용한 교회축전서곡과 크리스마스 서곡은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장엄한 작품들이며, 벨리니의 '동유병의 여인'의 선율에 의한 화려한 변주곡은 클라리넷 독주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풍의 작품이다.



903 1575-6 [Hybrid-SACD]

차이코프스키: 현악사중주 1,2번

위트레흐트 현악사중주단

클라우노프의 현악사중주 시리즈로 호평을 받았던 위트레흐트 퀸텟이 차이코프스키의 현악사중주들에 도전하였다. 독립적으로 자주 연주되는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가 너무나 유명한 현악사중주 1번과 작곡가 스스로 자신의 가장 훌륭한 현악사중주라고 평했던 2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현악기들의 자연스런 질감을 드러내는 뛰어난 녹음으로, 일본 레코드예술지로부터 '음질우수반'으로 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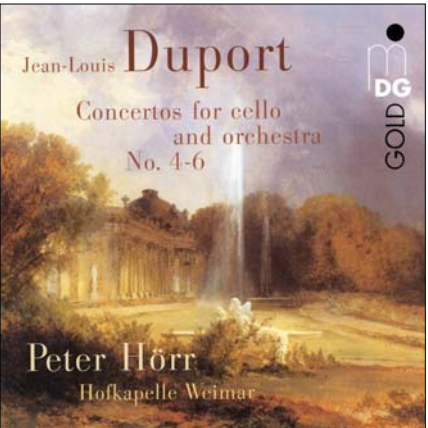
943 1579-6 [Hybrid-SACD]

모차르트:

피아노사중주 KV.478 & KV. 493

모차르트 피아노사중주단

모차르트가 남긴 두 편의 피아노사중주는 이 독특한 실내악장르의 기초와도 같은 작품들이다. 당시 피아노를 포함한 실내악에서 현은 화려한 피아노독주를 뒷받침하는 조역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모차르트의 이 작품들을 통해 3대의 현악기와 피아노는 동등한 밸런스의 활약을 보여주게 되었다. KV.478이 격정적인 반면, KV.493은 모차르트 특유의 상냥하고 아가자기한 매력에 돋보이는 작품이다.



943 1581-6 [Hybrid-SACD]

뒤포르: 첼로협주곡 4-6번

페터 호르(첼로, 지휘)

호프카펠레 바이마르

모든 첼리스트들의 스탠더드 레퍼토리로 애용되는 21개의 연습곡의 작곡가로 유명한 장 루이 뒤포르는 초기고전시대를 대표하는 첼로의 명인이었다. 음반에 수록된 3편의 첼로협주곡들은 당당한 1악장과 우아한 느린 악장, 그리고 경쾌발랄한 론도악장 전형적인 고전협주곡의 양식을 취한 작품들로, 하이든이나 보케리니의 첼로협주곡들에 비견될만한 준수한 작품들이다. 첼로음악 애호가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901 1577-6 [Hybrid-SACD]

브란트, 뵘메: 트럼펫을 위한 작품들

볼프강 바우어(트럼펫, 코넷)

올리버 트리엔델(피아노), 앙상블 볼프강 바우어

오스카 뵘메와 바실리 브란트는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활약했던 독일 트럼펫터들로, 수많은 러시아 트럼펫터들을 길러내었던 명교사들이기도 했다. 코넷과 피아노를 위한 브란트의 협주곡들과 트럼펫과 피아노를 위한 뵘메의 협주곡은 고도의 비르투오조를 요구하는 난곡들이며, 4대의 트럼펫을 위한 브란트의 시골소품과 트럼펫과 피아노를 위한 뵘메의 러시아춤들은 러시아인요선율을 차용한 소박한 작품들이다.



Soli Deo Gloria [SDG]

www.solideogloria.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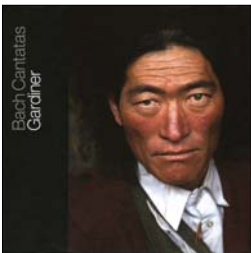


SDG 707 [2CD]

JS 바흐: 브란덴부르크협주곡 전곡

존 엘리엇 가디너/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가디너가 이끄는 우수한 시대악기 앙상블인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는 그동안 수많은 바로크/고전 레퍼토리를 꾸준히 음반으로 남겨왔다. 하지만 이들의 방대한 디스코그래피에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협주곡은 그동안 찾아볼 수가 없었다. 드디어 이들이 이 결착에 도전하였다. 가디너와 동료들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에 걸쳐서 펼쳐졌던 스피탈필드 페스티벌에서 이 작품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었고, 그 직후에 있었던 파리와 런던에서의 콘서트 상황들이 이 음반에 수록되었다. 가디너는 여섯 협주곡 중에서 두 작품만 지휘하였고, 나머지 네 작품에서는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카티 데브레체니가 악단을 이끌었다.



SDG 159 [2CD]

JS 바흐: 칸타타 Vol.9

캐서린 퍼지(sop)/ 프란세스 번, 찰스 험프리, 로빈 타이슨, 나탈리 스투츠망(alt)/

마크 패드모어, 크리스토프 겐츠(te)/ 스티븐 로지스, 고돌트 슈바르츠(bass)/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디너/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이번 신보는 스웨덴 룬트의 유서깊은 고딕건축물인 알헬고나키르칸과 바흐와 불가분의 장소인 라이프치히 토마스 교회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각각 삼위일체 이후 17번째와 18째 주일을 칸타타들을 담았다. CD1은 협주곡을 연상케하는 멋진 트럼펫 리토르넬로로 시작되는 BWV148, 테너 마크 패드모어의 절창이 빛나는 BWV114, 장대한 개시합창이 인상적인 BWV47, 복합창을 위한 모테트 BWV226으로 알차게 구성되었다. CD2는 16세기 여류시인 엘리자베트 크루시거의 찬가에 기초한 BWV96, 나탈리 스투츠망의 그윽한 저음이 빛나는 솔로 알토를 위한 칸타타 BWV169, 코랄 칸타타 BWV116, 바흐 최후의 작품인 코랄 '주님 보좌앞에 나아갑시다' 등을 담았다.

- CD1

삼위일체축일 후 17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 BWV148/ 주를 향하여 존귀하신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 BWV114

사랑하는 그리스도 신자여, 마음을 편히 가져라 BWV47/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어야 하느니라 BWV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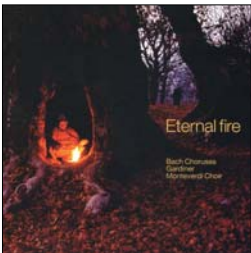
성신은 우리를 악한 자를 도와주시느니라 (모테트)

- CD2

삼위일체축일 후 18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 BWV96/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BWV169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리라 BWV116/ 평화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BWV668

나는 이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코랄)



SDG 177 [1CD Special Price]

Eternal Fire (바흐 칸타타 순례 코랄 하이라이트)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디너/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바흐 서거 250주기를 기념하여 1999년 크리스마스 바이마르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현존하는 바흐의 칸타타 모두를 한해동안 유럽 각지를 순회하면서 실황무대 위에 올려놓는 역사적인 작업이었다. 본 음반은 지금까지 선보인 가디너의 바흐 칸타타 순례 시리즈 음반들 중에서 유명한 코랄 14편을 갈무리한 것이다.

BWV 34 O ewiges Feuer

BWV 103 Ihr werdet Weinen

BWV 80 Ein feste Burg

BWV 178 Wo Gott der Herr nicht bei uns haelt

BWV 101 Nimm von uns, Herr

BWV 39 Brich den hungrigen dein Brot

BWV 12 Weinen Klagen Sorgen Zagen

BWV 176 Es ist ein trotzig

BWV 19 Es erhub sich ein Streit

BWV 27 Wer weisst wir nah emir mein Ende

BWV 20 O Ewigkeit du Donnerwort

BWV 186 Aergre dich, o Seele, nich

BWV 95 Christus der ist mein Leben

BWV 8 Liebster Gott



Capriccio SACD Collection

www.capriccio.at

오스트리아의 명문

마이너 레이블

Capriccio가

아울로스를 통해서

국내에 배급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가격대로 출시된

SACD Collection

시리즈와

빈 소년합창단의

음반들을

소개해드립니다.



71076 [SACD]

헨델:

오르간협주곡 Op.4 Nos.1-4, 6

에르세베트 아힘(org)

벨라 반팔비

부다페스트 스트링스

헨델의 오르간협주곡들은 자신의 오르토리오 무대의 막간 연주를 위해 작곡되었다. 헨델 스스로 이 악기의 명인이었던 만큼, 오르간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소리의 스펙트럼과 아기자기한 관현악 반주가 만들어내는 멋진 조화가 인상적인 작품들이다.



71080 [SA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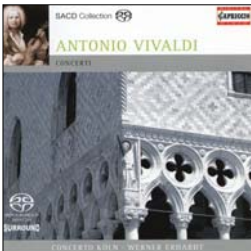
헨델:

모음곡(알치나, 아리오단테, 베레니체, 솔로몬, 로드리고 외)

케네스 실리토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알치나, 아리오단테, 베레니체, 솔로몬, 아그리피나, 로드리고 등 헨델의 대표 오페라와 오라토리오들에 삽입되었던 서곡과 관현악 소품들을 모음곡의 형태로 재치있게 엮은 음반. 귀에 익은 헨델의 선율들을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의 생기 발랄한 연주로 담았다.



71079 [SACD]

비발디:

협주곡(RV.158, 566, 441, 162, 585, 545, 565)

베르너 에르하르트

콘체르토 필론

콘체르토 필론이 연주한 비발디의 다양한 협주곡 녹음들. 2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RV566과 162, 오보에와 바순을 위한 협주곡 RV545, 더블 앙상블을 위한 RV585, 플루트협주곡 RV441,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 뉴트론즈의 콘체르토 그로소의 원곡으로 유명한 '화성의 영감' 중 RV565 등을 수록하였다.



71078 [SACD]

JS 바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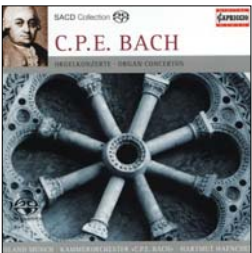
칸타타 (BWV 51, 82, 199)

에디타 그루베로바,

지크프리트 로렌츠/ 헬무트 빈셔

만/ 도이치 바흐 줄리스텐 외

소프라노를 위한 칸타타 BWV51 '만인이 환호하면 주를 맞으라'와 BWV199 '내 마음은 피바다를 건너'는 위대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의 독창과 헬무트 빈셔만이 지휘하는 도이치 바흐줄리스텐의 연주로, 베이스를 위한 칸타타 BWV82 '나는 족하도다'는 독일의 중견 베이스바리톤 지크프리트 로렌츠의 독창과 막스 폼머가 지휘하는 노이에스 바히세스 콜레기움 무지쿰 라이프치히의 연주로 담았다.



71123 [SACD]

CPE 바흐:

오르간협주곡 H.444, 446,

전주곡, 판타지

롤란트 윈호(org)

하르트무트 헨헨

CPE 바흐 캄머오케스터

프리드리히 대왕의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바흐의 아들들 중에서 작곡가로 가장 큰 명성을 얻었던 카를 필립 엠마누엘은 대왕의 여동생이자 아마추어 오르간 연주자였던 안나 아말리아 공주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르간 작품들을 남겼다. 그중 두 편의 오르간협주곡들과 오르간 독주곡인 전주곡과 판타지와와 푸가를 공주 자신이 연주했던 약기인 베를린 칼쇼르스트 교회의 미켈트 오르간을 사용하여 녹음한 음반.



71071 [SACD]

JC 바흐:

하프시코드협주곡, 신포니아

크리스티네 쇼른샤임(cemb)

케를린 바로크 콤파니, 카펠라

클로니엔시스 외

런던의 바흐'로 불리던 JS 바흐의 막내아들 요한 크리스티안의 교향곡과 협주곡들. 오페라 '시피오네의 자비' 서곡과 이중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은 한스 마르틴 린데/ 카펠라 콜로니엔시스의 연주로, 모차르트에 영향을 준 작품으로 꼽히는 교향곡 Op.6-6은 베르너 아르하르트/ 콘체르토 필론의 연주로, 하프시코드협주곡 F단조는 크리스티네 쇼른샤임의 독주와 베를린 바로크 콤파니의 연주로 수록하였다.



71074 [SACD]

두란테:

협주곡 1-8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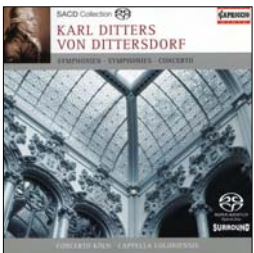
베르너 에르하르트

콘체르토 필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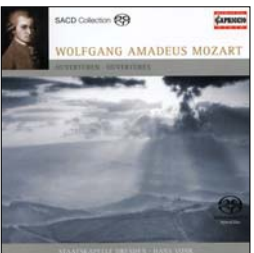
바흐보다 일년 앞서 태어난 프란체스코 두란테는 작곡가와 음악교사로서 당대의 큰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옴멜리, 파이지엘로, 페르골레지, 피치니 등의 경쟁한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평생 나폴리 일대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음악은 파리와 빈 등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을 정도로 작곡가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남국의 화사한 선율미를 자랑하는 6편의 협주곡을 콘체르토 필론의 활기찬 연주로 담았다.



71043 [SACD]
고색: 레퀴엠
WDR 방송합창단
헤르베르트 세르누스
카펠라 콜로니엔시스
사랑스런 소품 '가보트' 한곡으로 기억되는 이름이지만, 고색은 당대의 프랑스를 대표하는 교향곡과 종교음악 작곡가였다. 장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그의 레퀴엠(특히 진노의 날)은 이후 베를리오즈의 걸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멀티채널을 통한 입체 음향은 이 대작의 위용이 제대로 위력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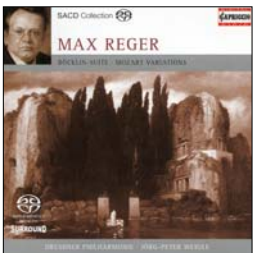
71121 [SACD]
폰 디터스도르프:
교향곡 '바스티유습격',
교향곡 '인류의 4시대' 외
한스 마르틴 린데
카펠라 콜로니엔시스 외
폰 디터스도르프는 120편 가까운 교향곡들을 남겼다. 그중 고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인류의 네가지 시대(황금시대, 은시대, 청동시대, 철시대)를 표현한 교향곡 '인류의 4시대'와 프랑스 혁명을 찬양하는 작품인 '바스티유습격', 하프협주곡 등을 함께 담았다.



71077 [SACD]
모차르트:
서곡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코지 판 투테 외)
한스 폰크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마술피리, 돈조반니,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 이도메네오, 황제 티토의 자비, 루치오 실라, 후궁탈출 등 모차르트의 주요 오페라 서곡들을 통독 이전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중후한 연주로 수록한 음반. 최근의 절충주의나 시대악기 연주에서 맛보기 힘든 중후한 스케일의 연주를 만나볼 수 있다.



71072 [SACD]
베토벤:
현악사중주 Op.131,
대푸가 (현악합주 편곡)
산도르 베그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Op.131은 기존 현악사중주의 정형성을 탈피한 독특한 외형과 장대한 스케일, 그리고 작곡가 만년의 심원한 음악관이 결합된 걸작이다. 대푸가 Op.133은 대위법에 대한 그의 뛰어난 재능을 확인시켜주는 작품이다. 아놀드 쇠클린에 의한 4개의 교향시는 유명한 '죽음의 섬'을 비롯한 이 회가의 회화작품들을 색채적인 관현악법으로 표현한 독특한 작품이다.



71118 [SACD]
레가:
모차르트 주제의 변주곡, 아놀드 쇠클린에 의한 네 개의 교향시 외르크 페터 바이글
드레스덴 필하모니
피아노소나타 K.331에서 주제를 인용한 모차르트 주제의 변주곡과 푸가는 이 작곡가를 대표하는 관현악걸작인 동시에 대위법에 대한 그의 뛰어난 재능을 확인시켜주는 작품이다. 아놀드 쇠클린에 의한 4개의 교향시는 유명한 '죽음의 섬'을 비롯한 이 회가의 회화작품들을 색채적인 관현악법으로 표현한 독특한 작품이다.



71044 [SACD]
버르토크:
피아노협주곡 1,2번, 이상한 만다린
줄탄 코치슈(pf), 죄르지 레헬
부다페스트 필
줄탄 코치슈는 언드라스 슈프, 데즈 랑키와 더불어 헝가리의 피아노 3총사로 화제를 모았던 이름이다. 그의 버르토크 협주곡 녹음은 이반 피셔와 함께 했던 필립스 녹음이 유명하지만, 자국의 노거장 죄르지 레헬과 협연한 본 음반 역시 출중하다. 발레 이상한 만다린 관현악모음곡은 네빌 매리니/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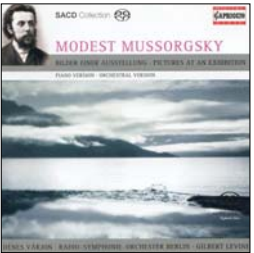
71051 [SACD]
미사 그레고리아나
후베르트 벨렌/ 칸타르테 레겐스부르크
교향 그레고리우스 1세가 집대성한 것으로 알려진 그레고리안 찬트는 서양음악의 원류와도 같은 위대한 음악유산들이다. 본 음반은 가톨릭 미사 전례 순서에 상응하는 찬트들을 배치한 미사 그레고리아나 부분과 살베 레지나, 마니피카트, 베니 크레아토르와 같은 유명 찬가들을 다양하게 수록한 찬가(Hymnus ecclesiae)의 두 파트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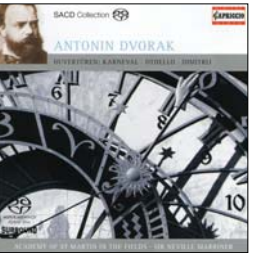
71073 [SACD]
멘델스존:
종교합창곡 (마니피카트, 아베마리아, 쉘림 호호 외)
드레스덴 십자가 합창단
베를리너 징가카데미
마니피카트는 멘델스존 최초의 대편성 종교합창곡으로 엘리야와 바울과 같은 걸작 오라토리오들을 낳은 기초가 되었다. 테너 독창과 합창을 위한 아베마리아, 유명한 보이소프라노 독창이 돋보이는 라우다테 푸에리를 수차례 내한공연으로 호평받았던 드레스덴 성심자가합창단의 연주로 담았다. 루터의 크리스마스찬가에 의한 칸타타인 'vom Himmel hoch'도 함께 수록하였다.



71042 [SACD]
차이코프스키:
이탈리아 기상곡, 프란체스카 디리미니, 1812년 서곡 외
네빌 매리니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카라얀의 필적하는 방대한 레퍼토리 폭을 자랑하는 네빌 매리니. 그가 지휘한 차이코프스키의 대표 관현악인기곡 네 작품을 수록한 승전축하 음악들인 1812년 서곡과 슬라브 행진곡, 이탈리아 여행에서의 인상을 음악으로 옮긴 이탈리아 카프리치오, 그리고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얻은 교향환상곡 프란체스카 디리미니가 수록되었다.



71047 [SACD]
무소르스키:
전람회의 그림 (피아노+관현악)
데네스 바론(pf)
길버트 레빈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 라벨의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재탄생한 관현악버전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원곡인 피아노독주곡 역시도 풍부한 상상력을 음악으로 표현해낸 작곡가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걸작이다. 본 음반은 피아노버전과 관현악 버전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프란츠 리스트상 수상자이자 리스트음악원의 교수로도 활약 중인 데네스 바르요이 피아노를 맡았다.



71075 [SACD]
드보르작:
서곡 (카니발, 오텔로, 디미트리),
교향시 '물요괴'
한스 치머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네빌 매리니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교향시 '물요괴'는 보헤미아의 전래고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민족주의 작곡가로서의 드보르작을 확연히 드러내는 작품이다. 무소르스키의 '보리스고두노프'의 영향을 받아 작곡한 오페라 '디미트리'의 서곡과 '자연, 삶 그리고 사랑' 3부작 중에서 각각 '삶'과 '사랑'에 해당하는 두 작품인 카니발서곡과 오텔로 서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71020 [Hybrid-SACD]
빈 소년 합창단 종교합창 걸작선
할렐루야, 아베 베를, 아베 마리아, 모차르트 레퀴엠과 대관식 미사 발췌 외
헨델 메시아 중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나셨네', '할렐루야', 아멘 코러스, 모차르트 레퀴엠 중 진노의 날과 라크리모사, 대관식 미사 중 글로리아와 베네딕투스, 모차르트의 아베 베를, 슈베르트와 브루크너의 아베마리아, 하이든 천지창조 중 '하늘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와 '주의 선하심으로', 홀퍼딩 '헨젤과 그레텔' 중 저녁기도, 바흐 칸타타 BWV/21 중 '내 영혼이 만족하며' 등을 빈 소년합창단의 노래로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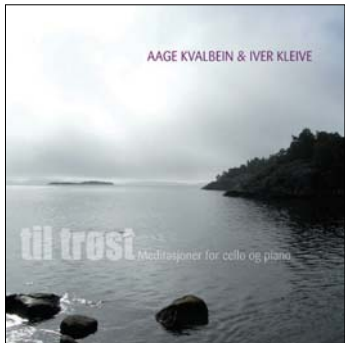


10589 [Normal CD]
모차르트: 레퀴엠, 아베 베를
브루크너: 3편의 모테트
빈 소년합창단/ 코러스 비엔나/ 페터 마르쉴/ 빈 폴크스오퍼 오케스트라
독창진과 합창단 모두가 남성으로만 조직된 음반. 여성의 고음역을 가뿐히 소화해내는 최고의 소프라니스트 막스 엠마누엘 첸치치가 소프라노를, 영화 파리넬리에 목소리를 제공함으로써 유명해진 흑인 카운터테너 데렉 리 라킨이 알토를 맡았고, 빈 소년합창단원들이 합창의 소프라노와 알토파트를 담당하였다. 아베 베를 코르푸스와 브루크너의 아름다운 모테트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KKV(Kirkelig Kulturverksted)

www.kkv.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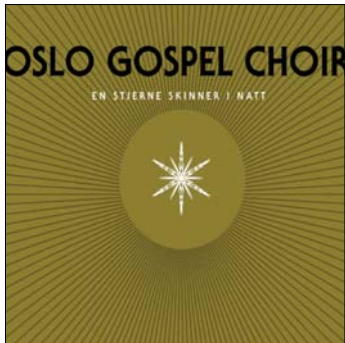
FXCD 341
Aage Kvalbein & Iver Kleive
Til trest

Aage Kvalbein과 Iver Kleive의 이 새로운 CD를 위해 오슬로의 야코프 쿨투르교회가 훌륭한 스튜디오 역할을 하였다. 이 교회의 슈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와 첼로를 사용하여, 두 명의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뮤지션들이 멜랑콜리의 세계를 심도있게 파헤쳤다. Kvalbein과 Kleive는 감성자들을 클래식 음악과 전통민요, 그리고 애칭 발라드들의 보석들로 이끈다. Kvalbein과 Kleive는 음악활동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듣는 이들의 영혼을 편안케 만드는 완벽한 음악 스타일을 발견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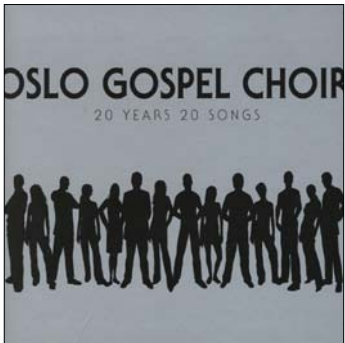
FXCD 342
Solveig Slettahjell
Natt i Betlehem

베들레헴의 예수탄생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한 성지다. 그 교회의 벽은 아이콘, 성화, 보석들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상징들로 덮여있다. 2000여 년 전 아기 예수를 방문한 동방박사들의 선물 이후 지금까지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로 예수의 탄생을 기념한다. Solveig Slettahjell 역시 그러하다. 그녀의 선물은 오직 그녀만이 들려줄 수 있는 멋진 크리스마스 노래들이다. 피아노의 Tord Gustavsen, 트럼펫의 Sjur Miljeteig과 더불어, 그녀는 이 고대의 교회에서 4일 밤을 보냈다. 순례자들이 모두 돌아간 뒤 찾아온 밤의 고요함과 함께 그들은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레코딩을 했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앨범이 바로 'Natt i Betlehem'이다.



FXCD 343
Oslo Gospel Choir
En Stjerne Skinner i Natt

올해는 오슬로 가스펠 콰이어의 설립 20주년이 되는 해다. 'En stjerne skinner i natt'는 이를 기념하여 출시된 음반이다. 작년 12월 오슬로 콘서트홀에서 녹음된 것으로, 이 합창단 특유의 친근한 크리스마스 노래들을 담고 있다. 이 음반은 지난 20년 동안 이들이 노르웨이 전역에서 펼쳐왔던 크리스마스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를 엿보게 한다. 'Glade jul', 'Julekveldsvisa', 'O, helga natt'와 같은 유명 캐럴들과 더불어 이 합창단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크리스마스 노래들을 함께 담았다.



FXCD 344
Oslo Gospel Choir
20 Years 20 Songs

20년 전 Tore Aas는 새로운 합창단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구인광고를 일간지에 실었다. 그 반응은 대단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디션을 위해 모여들었고, 그 중 32명이 선발되었다. 이들의 첫 콘서트 이후 관객들은 열광했고, TV 출연과 콘서트가 연이어 펼쳐졌다. 그동안 이들은 15장의 앨범을 발매하였고, 500회 이상의 콘서트를 열었다. 단원들 중 몇몇은 솔로가수로서도 캐리어를 쌓아나갔다. 오슬로 가스펠 콰이어는 1990년대 노르웨이의 베스트셀링 아티스트였으며, 1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 특별한 음반은 데뷔 이후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노래 20곡을 골라 담았다.



FXCD 345
Kari Bremnes
LY

Kari Bremnes의 새 앨범 LY는 폭넓은 아이디어와 비전, 그리고 음악적 취향에 걸친 11곡의 새로운 노래를 담고 있다. Bremnes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곡을 만들었으며, 같은 그림에서도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함께 볼 것을 권한다. 그녀의 노래는 부글부글 끓는 분노와 사랑, 진실에 대한 추구, 극지방 스발바르트 섬의 여인들의 춤과 죽음 그리고 운명에 대한 것들이다. Kari는 모든 곡들을 스스로 작곡하였고, 프로듀서이자 건반 연주자인 Bengt Hanssen과 함께 편곡 작업을 마쳤다. 드럼의 Helge Norbakken, 기타의 Hallgrim Bratberg, 베이스의 Sondre Meisfjord로 구성된 다이나믹한 밴드가 함께 하였으며, 트럼펫터 Arve Henriksen이 두 트랙에 게스트로 참여하였다.



FXCD 348
Sigvart Dagsland
Hymns

Sigvart Dagsland가 Hymns라는 단순한 타이틀로 자신의 두 번째 찬송가 음반을 선보였다. Thin Lizzy, Pink Ployd등에서 활약했던 영국의 블루스 기타리스트 Snoy White와 뉴욕에서 찾아온 전설적인 트럼펫 연주자 Lew Soloff, 그리고 오르간 및 건반 연주자 Iver Kleive가 녹음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 앨범은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두 교회에서 녹음되었는데, 특별히 1928년 Ernest Skinner가 완성한 프린스턴 대학 채플의 오르간이 녹음에 이용되었다. 어느 누구도 Sigvart Dagsland처럼 찬송가를 부르지 못한다. 그는 순수한 신앙적 경험에 기초한 유니크한 찬송가 해석가이다. 본 음반에는 'Amazing Grace', 'Abide with me', 'How Great Thou art'와 같은 유명 찬송가들이 담겨 있다.



FXCD 349
Rim Banna
April Blossoms

팔레스타인 출신의 림 바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자신의 노래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수많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얻어왔다.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 난민촌의 어린이들을 위한 본 앨범에는 지난 20년 동안의 노래들과 함께 그녀의 새로운 노래들도 함께 수록되었다. 노르웨이, 터키, 미국의 뮤지션들과 나사렛의 어린이 합창단이 참여한 이 앨범은 전쟁으로 상처받기 이전 팔레스타인의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유머를 담았다. 고집센 당나귀, 끈과 함께 노는 어린 고양이, 모든 종류의 과일과 가득한 정원, 생일축하, 손가락놀이, 자장가와 같은 어린이들의 관심사들이 노래를 통해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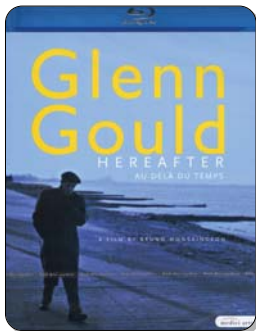


FXCD 352
Skruk
Starry crowns in heaven

Skruk이 선보이는 흑인영가 음반. 흑인영가는 그동안 Skruk의 레퍼토리에 단골로 다뤄왔던 분야지만, 음반 전체를 흑인영가만으로 채워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6년의 전통을 지닌 노르웨이 최고의 혼성합창단인 Skruk은 감각적인 편곡과 뛰어난 보컬 앙상블을 통해 흑인영가도 놀라운 예술적 완성도로 거듭날 수 있음을 이 음반을 통해 확인시켜준다. 'Give me Jesus', 'Elijah Rock', 'The Battle of Jericho', 'We shall overcome' 등의 대표 흑인영가들을 수록하였다.



www.euroarts.com



Medici Arts 3073314

글렌 굴드: 이 시간 너머로

2006년 피파 도르상에 빛나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글렌 굴드의 친구로 그에 관한 저서를 네 권이나 썼던 세계제일의 글렌 굴드 전문가이며 필름 제작자인 브루노 몽생종의 회심작이다. 연주가의 생애를 그대로 더듬는 평범한 바이오그래피 수준이 아니라 예리한 통찰과 상상력으로 진한 감동을 유도하는 하나의 예술 영상이다. 굴드를 내레이터 역할로 만들었고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동영상이나 사진컷 들을 어마어마하게 실었다. 연주나 인터뷰 장면 외에 해변을 거니는 굴드의 모습이라든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은 정말 꿈결 같다. 이제까지의 글렌 굴드에 관한 자료 중 가장 매혹적인 영상물이다. 2006년 피파(Fipa)상 음악 및 스펙터클 부문 수상작이다.



Medici Arts 2056334

말러: 교향곡 3번

안나 라르손(알토)/ 아놀드 쇤베르크 합창단, 탈처 소년합창단/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수입 Blu-ray 로 선보이는 아바도 / 루체른 페스티벌의 말러 교향곡 3번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진행 중인 말러 교향곡 3번. 2007년 8월 19일 루체른의 KKL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실황을 수록하였다. 수입완제품으로 수입되었던 DVD에 이어 Blu-ray로 선보인다. 말러의 교향곡들 중에서 가장 긴 연주시간을 자랑하는 교향곡 3번은 대편성 오케스트라에 알토 독창, 그리고 소년과 여성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필요로 하는 작품으로, 말러 자신의 주장처럼 음악으로 하나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은 모두 6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악장에는 말러 자신이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대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타이틀들이 달려있다. 웅대한 마지막 악장이 마무리된 뒤 아바도가 지휘봉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숨 막힐 듯 이어지는 정적은 이 위대한 연주의 감동을 더욱 배가시킨다. 콜리아 블라어, 나탈리 구트만, 자비네 마이어, 볼프람 크리스트, 하겐 패밀리와 같은 주축 멤버들의 모습은 여전하며, 엠마누엘 파위와 알브레흐트 마이어의 빈자리는 암스테르담 콘체르토헤보우와 보스턴 심포니의 수석을 거친 뒤 솔리스트로 맹활약중인 자크 존과 현 밤베르크 심포니의 수석인 카이 프림프겐이 맡았다.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1 388

쇼스타코비치: 므젠스크의 맥베스 부인

러시아 최고의 연극연출가 레프 도진이 해석한 인간 본능의 오페라

쇼스타코비치의 〈므젠스크의 맥베스 부인〉은 자기 집 일꾼인 정부와 놀아나다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살해하는 요부 카테리나 이즈마일로바의 얘기다. 내용 자체가 너무나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섹스 장면도 포함된 바람에 소비에트 당국의 비판을 받았고 한때 순화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카테리나 이즈마일로바〉라는 제목으로 공연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간 상황이다. 이토록 오페라 역사상 가장 섹슈얼한 작품이 1934년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에서 작곡되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2008년 피렌체의 마지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나 극장 프로젝션을 수록한 본 영상물은 러시아 최고의 연극 연출가 레프 도진이 연출을 맡았다. 그간 이 오페라의 연출이 섹슈얼한 시각적 충격에 초점을 맞추어왔다면 도진은 쇼스타코비치가 본질적으로 추구한 등장인물들의 내적 충동을 표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것이 풍부한 연극적 효과에 의해 실로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공연의 가치는 충분한데, 게다가 타이틀 롤의 장-미셸 카르보네, 남자답지만 지나치게 거친 그녀의 연인 역의 세르게이 쿠냐예프는 캐릭터에 딱 들어맞는 외모, 연기, 노래의 삼박자를 갖추었다.

[보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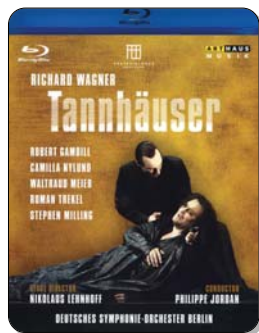
○ 2006년 5월에 7시간 30분짜리 연극이 엘지아트센터에서 공연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러시아뿐 아니라 세계연극계 최고수준의 연출가로 평가받는 레프 도진(1944~)이 이끌고 온 상트페테르부르크 말리 극장의 〈형제자매들〉이었다. 관객들은 그 놀라운 수준에 찬사를 보냈다. 그런데 레프 도진은 종종 오페라 연출도 한다. 2005년 파리 바스티유 극장에서 공연된 차이코프스키의 〈스페이드의 여왕〉, 2008년 피렌체의 마지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 극장에서 공연된 쇼스타코비치의 〈므젠스크의 맥베스 부인〉이 그것이다. 레프 도진은 연극을 통해서 삶을 깊고 천천히 돌아본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그의 연극에 있어서 숨이 길다는 것은 당연하다. 오페라 연출에 있어서도 그런 원칙은 지켜진다.

○ 타이틀 롤을 부르는 장-미셸 카르보네(1963~)는 오랫동안 이탈리아 오페라의 히로인으로 활약해왔으나 뒤늦게 주된 영역을 독일 레퍼토리와 현대물로 이동하면서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엔 바그너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에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므젠스크의 맥베스 부인〉은 그녀의 첫 영상물이다.



ARTHAUS
MUSIC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1 352

바그너: 탄호이저

로버트 갬빌(탄호이저)/ 카밀라 닐룬트(엘리자베트)/ 발트라우트 마이어(베누스)/ 로만 트레켈(볼프람)/ 필립 조르당/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화제의 연출가 니콜라우스 렌호프가 파격적으로 연출한 탄호이저

바그너는 13세기 초엽에 실존했던 미네징거인 탄호이저의 이야기와 바르트부르크의 노래경연대회와 관련된 전설을 적절히 조합하여 로맨틱 오페라 〈탄호이저〉를 완성하였다. 성과 속 사이에서 방황하는 탄호이저와 각각 성과 속을 대표하는 여성캐릭터인 엘리자베트와 베누스가 펼쳐나가는 이 중세 드라마는 베누스베르크의 환락, 바르트부르크 대회의 장엄함과 같은 스펙터클한 볼거리와, 순례의 합창, 저녁별의 노래, 전당의 노래, 축전행진곡과 같은 귀에 익은 명곡들이 즐비하다. 본 DVD는 2008년 바덴바덴의 축전극장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차기 파리 국립오페라의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젊은 거장 필립 조르당이 지휘봉을 잡았다. 현존 최고의 헬덴 테너인 로버트 갬빌과 관록의 바그너 히로인 발트라우트 마이어, 그리고 신성 드라마틱 소프라노 카밀라 닐룬트가 훌륭한 절창을 들려준다. 이미 이 극장 무대에 올렸던 〈파르지팔〉과 〈로엔그린〉으로 획기적인 바그너관을 역설했던 니콜라우스 렌호프가 이번에도 시공을 초월한 파격적인 컨셉으로 이 오페라를 재해석하였다.

아당: 지젤

〈지젤〉이 초연되었던 발레의 성소, 파리 오페라 발레의 최신실황

프랑스 낭만발레를 대표하는 걸작〈지젤〉은 아돌프 아당의 음악, 장 코라이와 질 페로의 안무로 1841년 파리 오페라 발레에서 초연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난 시골 처녀 지젤, 죽은 후 빌리라는 귀신의 무리에 합류했지만 무덤가 숲으로 찾아온 옛 연인 알브레히트의 목숨을 지키고자 혼신을 다하는 〈지젤〉은 낭만주의의 이상을 담은 최고의 예술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실 세계 인1막, 비현실적 세계인 2막의 대조효과도 더할 수 없이 훌륭하다. 본 영상물은 2006년 12월, 파리 가르니에 극장에서 있었던 파리 오페라 발레의 실황을 담은 것인데, 이 작품에 대한 동 발레단의 연구권에도 불구하고 정식 영상물로는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전설적인 무대장치가 알렉상드르 브누아가 1924년에 제작한 세트를 재현하여 독특한 미감을 더했다. 레티샤 뿌을(지젤)은 지젤의 시골 처녀의 캐릭터를 살린 독특한 연기를 펼치며 1막과 2막의 대조를 더욱 뚜렷이 한다. 주로 현대물에 출연했던 니콜라 르 리쉬(알브레히트)는 낭만발레에서도 최고의 스타임을 입증하며, 장신의 무용수 마리아네스 지요(미르타)는 빌리 우두머리의 카리스마를 맘껏 발휘했다.



DVBD-BLGISP



ARTHAUS
MUSIC

www.arthaus-musik.com



DVBD-OPTRIT

푸치니: 3부작

파바로티의 고향 모데나에 떠오른 스타, 아마릴리 니차

가장 사랑스런 아리아로 알려진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결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지 않는다. 약간의 애교를 떨지만 사실은 좋아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막으면 강에 투신하겠다고 은근히 위협도 하고 있다. 이 오페라가 나오는 〈자니 스키키〉는 독립적 오페라이긴 하지만 푸치니가 하룻밤에 공연되도록 작곡한 삼부작의 마지막 작품이다. 그런데 이 삼부작은 실제로 한꺼번에 공연하기 힘들다. 〈외투〉에는 베르조 오페라의 거친 치정과 살인이 벌어지고, 〈수녀 안젤리카〉는 인간적인 고뇌로 절망에 다다른 수녀를 다루지만 지극히 종교적이며, 〈자니 스키키〉는 푸치니 유일의 희가극이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태어나고 최근 생을 마감하기도 한 이탈리아의 소도시 모데나의 작은 오페라 극장이 2007년 2월에 〈삼부작〉을 한꺼번에 무대에 올렸다. 게다가 밀라노 출신의 소프라노 아마릴리 니차가 세 작품 모두의 주역을 노래하여 화제를 낳았다. 니차는 평소애 리리코 스피토의 다소 무거운 레퍼토리를 소화하는 미모의 유망 소프라노인데, 〈수녀 안젤리카〉의 서정적 리리코와 〈자니 스키키〉의 보다 가벼운 리리코까지 매력적으로 소화해냈다. 좋은 상태의 영상물을 만나기 힘들었던 〈삼부작〉의 결정판이나 다름없다.

R. 슈트라우스: 엘렉트라

오페라 역사상 최고의 잔혹극! 취리히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다

〈엘렉트라〉는 소포클레스의 비극으로 유명한 그리스 고전극이다. 트로이 전쟁에서 귀환하자마자 부정한 아내 클뤼템네스트라와 그녀의 정부 에기스트에게 살해당한 미케네 국왕 아가멤논.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하는 엘렉트라 공주와 그 여동생 크리소미테스, 남동생 오레스트의 얘기다. 모친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기에 고전이면서도 금기시되었던 소재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당대 최고의 극작가 후고 폰 호프만스탈과 협력하여 수많은 명작을 만들었는데 그 첫 작품이 〈엘렉트라〉였다. 얼핏 바그너를 연상시키지만 그 폭발적인 강렬함은 〈니벨룽의 반지〉 이상이다. 과연 섬뜩한 오페라의 대표작인 것이다. 본 영상물은 2005년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실황이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연극 파트를 총괄하는 거물 마틴 쿨레이의 연출이다. 쿨레이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굵듯이 파헤치는 스타일로 유명한데 이 공연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모든 엘렉트라를 압도하는 예바 요한슨의 노래와 연기가 압권이며 현대적 상황설정이 전혀 낯설지 않은 일급 프로덕션이다. 비슈코프와 함께 최고의 슈트라우스 지휘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가 지휘대에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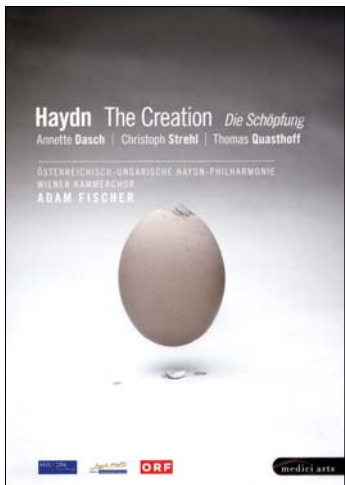


DVBD-OPELEK



Medici Arts DVD

Medici Arts는 EuroArts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www.euroart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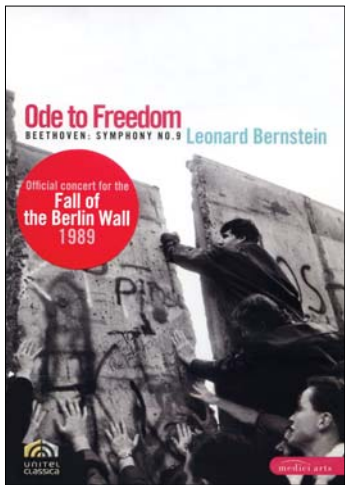
Medici Arts DVD 2057468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아네테 다슈(sop)/ 크리스토프 슈트렐(te)/ 토마스 크바스토프(br)/
아담 피셔/ 오스트리아 헝가리 하이든 필하모니

토마스 크바스토프와 아담 피셔의 하이든 서거 200주기 기념 콘서트

2009년 5월 31일 하이든이 반평생을 바쳤던 역사적인 장소인 아이젠슈타의 에스테르하지 궁전에서 펼쳐진 작곡가의 서거 200주기 기념 콘서트 실황. 도라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작곡가의 교향곡 전집을 완성했던 주인공들인 이 시대 최고의 하이든 스페셜리스트 아담 피셔와 오스트로-헝가리 하이든 필하모니가 작곡가의 대표 종교음악이자 메시아와 더불어 오라토리오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천지창조> 전곡을 연주하였다. 최근 유럽 일급 오페라 무대들에서 모차르트 가수로 각광받고 있는 소프라노 아네테 다슈와 테너 크리스토프 슈트렐이 참여하였고, 신체장애를 이겨내고 이 시대 최고의 베이스 바리톤으로서 전 세계 음악애호가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토마스 크바스토프가 이 특별한 콘서트를 더욱 뜻 깊게 만들어주었다. 아담 피셔와 오스트로-헝가리 하이든 필하모니는 작곡가의 서거 200주기를 기념하여 오는 11월 고양과 서울에서 역사적인 내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Medici Arts DVD 2072039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 베를린 장벽 붕괴 기념 콘서트

준 앤더슨(sop)/ 사라 워커(alt), 클라우스 쾨니히(te), 안 헤드릭 로터링(bass)/
레너드 번스타인/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 외

베를린 장벽 붕괴를 기념하는 번스타인의 자유의 송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린 불과 며칠 뒤였던 1989년 12월 25일, 반세기 가까웠던 이 도시의 분단이 끝났음을 기리는 특별한 콘서트가 동베를린의 유서 깊은 연주회장인 샤우스필하우스에서 펼쳐졌다. 이제 고인이 된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봉을 잡았던 이날 콘서트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은 '환희(Freude)의 송가'가 아니라 작곡가 자신이 처음 의도했던 '자유(Freiheit)의 송가'로 원래 모습을 찾았다.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을 주축으로 과거 이 도시를 점령했던 네 나라를 상징하는 뉴욕 필, 키로프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파리 오케스트라, 그리고 동독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단원들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였고, 바이에른 방송합창단에 베를린방송합창단(동베를린)과 드레스덴 필하모니 어린이합창단이 가세한 연합합창단이 참여하였다. 번스타인의 불굴의 노익장이 뜨겁게 작열하는 이 역사적인 공연을 유료아츠의 수입 완제품 DVD로 만나보시라.



Medici Arts DVD 2072488
[2DVDs]

바그너: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팔크 슈트룩만(한스작스)/ 아인 앙거(포크너)/ 요한 보타(발터)/ 리카르다 메르베트(에바)/
마이클 셰이드(다비트)/ 아드리안 에뤼트(베크메서) 외/ 크리스티안 틸레만/ 빈 국립오페라

게르만 지휘자의 적통 크리스티안 틸레만, 마이스터징거를 지휘하다

현재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최고의 카드로 각광받고 있는 게르만 마에스트로 계보의 계승자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게르만 문화에 대한 독선적인 자긍심으로 돌돌 뭉친 바그너의 문제작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를 지휘하였다. 2008년 1월 빈 슈타츠오퍼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이 오페라의 레퍼런스 급 연출의 하나로 손꼽히는 오토 쟁크의 프로덕션을 리바이벌한 것이다. 틸레만은 특유의 묵직하고도 느긋한 흐름으로 이 대작의 거대한 스케일을 한껏 강조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캄머징거의 영예를 수여받은 세 명의 정상급 가수들(팔크 슈트룩만-작스, 요한 보타-발터, 마이클 셰이드-다비트)을 중심으로 한 빈 슈타츠오퍼의 주역 가수들의 뛰어난 열창과 자연스런 열연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당시 빈 현지의 언론들은 '명가수들의 축제', '장엄한 연주', '순수한 즐거움의 다섯 시간'이라는 문구들로 이 공연에 찬사를 보냈다.

[보조자료]

○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는 1868년 뮌헨에서 초연되었던 획극적인 내용을 담은 바그너 유일의 오페라다. 16세기중반 남부독일의 자유도시 뉘른베르크를 배경으로 하며, 각 직업 길드의 명가수(마이스터징거)들의 노래경연대회가 드라마의 중심소재가 된다. 떠돌이 기사 발터는 첫눈에 반한 에바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노래경연대회에 참석할 것을 결심한다. 에바를 짝사랑하던 서기 베크메서 역시 같은 목적을 위해 발터와 경쟁하게 된다. 위대한 마이스터징거 한스 작스의 도움과 우여곡절의 소동 끝에 마침내 발터는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뉘른베르크의 시민들은 독일 문화의 우수성을 소리 높여 노래하면서 이 장엄한 오페라는 막을 내린다.

○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의 주인공인 한스 작스는 실존 인물이다. 1494년 뉘른베르크에서 태어났으며, 1576년 같은 도시에서 사망하였다. 당시를 대표하는 마이스터징거였으며, 시인이자 희곡작가였다. 또한 오페라에 나오는 것처럼 구두공이기도 했다. 일생에 걸쳐 6,000곡 가까운 노래를 남겼다고 하나 현존하는 것은 약 4200여 편이다. 비극과 희극 몇 편도 함께 전해져온다.

○ 독일어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지휘자 크리스티안 틸레만은 1959년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그는 과거의 독일거장들과 마찬가지로 작은 오페라극장의 연습반주자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정상에 자리에 오른 정통 코스를 밟아왔다. 1997년 베를린 도이치오퍼의 음악감독에 오르면서 독일음악계의 기대를 모았고, 2004년부터는 뮌헨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2000년 '마이스터징거'로 바이로이트에 데뷔하였고, 2006년부터는 니벨룽의 반지의 새로운 프로덕션을 지휘하였다. 2007년 11월에는 뮌헨 필과 함께 내한연주를 가지기도 했었다.



Medici Arts DVD 2072458
[2DVDs]

도니체티: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루치아〉만큼 숨막히는 오페라! 게다가 그루베로바의 다큐멘타리까지!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는 환갑을 넘겼음에도 여전히 ‘벨칸토 오페라의 여왕’으로 대접받고 있으며 특히 뮌헨의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에서 그 위상은 절대적이다. 2009년 7월, 동 극장에서 공연된 도니체티의 걸작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에서 그루베로바는 만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열창으로 이 난역을 소화했다. 도대체 그 초인적인 열정과 가창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 영상물은 그루베로바의 인터뷰와 연습장면, 젊은 날의 모습을 담은 ‘벨칸토의 예술’이라는 54분짜리 다큐를 별도로 제공하여 이 경이로운 소프라노를 해부한다. 사실 이날 공연의 주인공은 그루베로바만이 아니었다. 그녀와 같은 슬로바키아 출신의 신예 테너 파블 브레슬리크는 멋진 외모와 놀라운 미성으로 비아손이나 플로레즈 못지않은 새로운 스타 테너의 탄생을 알렸다. 시오노 나나미의 ‘르네상스의 여인들’에도 나오는 실존 귀부인을 주인공으로 한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는 비극적인 모자 관계를 다룬다. 16세기 이탈리아 귀족사회에서 악녀로 소문난 루크레치아는 사생아로 낳은 탓에 남의 손에 맡겼던 아들을 우연히 만나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 그러다가 그녀를 음해하는 세력과 맞서다가 그만 실수로 아들에게 독약을 먹이고 마는데...

[보조자료]

○ 루크레치아 보르지아(1480~1519)는 나중에 교황 알렉산더 6세가 된 로드리오 보르지아의 외동딸이며 체사레 보르지아, 조반니 보르지아, 조프레 보르지아와 남매지간이다. 루크레치아의 가족은 훗날 르네상스 시대 교황들의 특색이라고 주장되는 냉혹한 마키아벨리적 정치와 타락상의 전형으로 악명을 떨쳤다. 그녀 역시 요부(妖婦)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수많은 소설, 오페라, 영화의 주인공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루크레치아를 중요 인물이나 세력가와 결혼시키는데 일조하였다. 그녀는 조반니 스포르차(페사로의 영주), 아라곤의 알폰소, 페라라 공작 알폰소와 결혼하였고 다른 연인도 있었다. 루크레치아는 일곱 또는 여덟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중 그녀가 낳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아버지도 불분명한 조반니가 오페라에 나오는 제나로의 모델일 것이다.

○ 크리스토프 로이가 연출한 무대는 독일 오페라 극장들이 자주 그러하듯 무척 실험적이다. 의상은 현대 스타일이고 무대 장치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두 시간 내내 바뀌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등장인물들의 긴장관계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데는 무척 유효하다. 지휘는 프랑스 출신이며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의 음악감독을 역임(1999~2004)한 베르트랑 드 빌 리가 맡았다.



Medici Arts DVD 2057758

베를린 필의 2009년 발트워네 콘서트

스트라빈스카: 봄의 제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차이코프스카: 호두까기 인형 발레

예핌 브론프만(pf)/ 사이먼 래틀/ 베를린 필하모닉

러시아의 용솟음치는 리듬으로 장식된 여름밤의 음악축제

매년 여름 베를린 필은 베를린 외곽 숲속의 야외공연장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더불어 성대한 공개 콘서트로 한 시즌을 마무리한다. 빈 필의 신년음악회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사랑받고 있는 발트워네 콘서트가 바로 그것이다. 2009년 6월 21일에 있었던 본 콘서트는 ‘러시아 리듬’이라는 주제로 음악감독 사이먼 래틀이 직접 지휘봉을 잡았다.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1막 발췌로 시작된 본 콘서트는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3번과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라는 막강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영화 ‘사인’으로 한층 유명세를 더한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3번은 피아노협주곡 사상 최고의 난곡 중 하나로 악명 높은 작품으로, 이미 음반을 통해 이 작품의 뛰어난 해석가로 명성을 쌓은 우즈베크 출신의 기교파 피아니스트 예핌 브론프만이 눈부신 건반 위의 아크로바틱을 펼쳐나간다. ‘봄의 제전’에서는 래틀의 천부적인 리듬감각과 베를린 필의 뛰어난 연주역량이 빛을 발한다. 항상 이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링케의 ‘Berliner Luft’에서는 오랜만에 타악기주자로 되돌아간 래틀의 재미있는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베를린 필의 2009년 유러피언 콘서트

슈베르트: 교향곡 9번 ‘그레이트’ / 마르투치: 추억의 노래/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

비올레타 우르마나(sop)/ 리카르도 무티/ 베를린 필하모닉

자신의 고향 나폴리에서 17년 만에 베를린 필을 지휘한 리카르도 무티

매년 5월 1일 유럽의 주요도시들을 순회하며 열리는 유러피언 콘서트는 발트워네 콘서트와 더불어 베를린 필을 대표하는 양대 이벤트로 음악애호가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2009년의 유러피언 콘서트는 이탈리아 나폴리의 산 카를로 오페라극장에서 펼쳐졌다. 이 도시가 배출한 세계적인 지휘자인 리카르도 무티가 무려 17년 만에 베를린 필을 지휘하였고, 100년전 이 도시에서 사망한 주제페 마르투치의 작품이 특별히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으로 장엄하게 시작된 이 콘서트는 마르투치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관현악반주의 아름다운 연가곡 ‘추억의 노래’로 이어진다. 메조소프라노로 캐리어를 시작하여 지금은 베르디와 바그너에 관한 현존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거듭난 비올레타 우르마나가 독창자로 나섰다.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슈베르트의 ‘그레이트’ 교향곡이다. 그간의 긴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무티와 베를린 필은 완벽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며 이 교향곡의 부제에 걸맞은 장대한 스케일의 연주를 만들어내며, 이 도시가 낳은 자랑스러운 거장을 향한 나폴리 시민들의 열렬한 갈채와 더불어 이 특별한 콘서트가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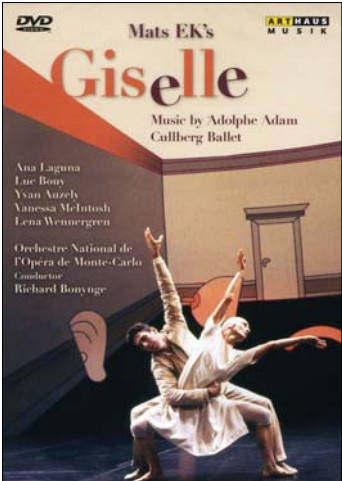


Medici Arts DVD 2057728



Arthaus DVD

www.arthaus-musi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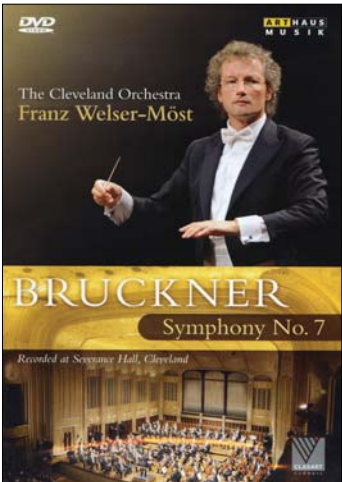


Arthaus DVD 101 380

지젤 (모던 댄스)

믿었던 연인에게 속아 미쳐버린 지젤, 죽는 대신 정신병원에 가다

〈지젤〉은 1841년 파리에서 초연되어 낭만 발레의 전성기를 연 고전적 명작이다. 순진한 시골 처녀 지젤은 알브레히트의 신분을 모른 채 사랑을 나누었으나 그가 약혼녀까지 있는 귀족임을 알게 되자 실성한 상태로 죽어버리고 만다. 깊은 숲속에 묻힌 지젤은 새벽이면 깨어나 숲을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유령 집단인 빌리의 일원이 되지만, 그녀의 무덤을 찾아온 알브레히트마저 죽이려는 다른 빌리들로부터 그를 지켜낸다.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뛰어난 안무가의 한 사람인 스웨덴의 마츠 에크는 이 얘기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냈다. 지젤은 원래 좀 모자란 소녀이며 사랑에 실패한 충격으로 미쳐버린 다음에는 죽는 대신 정신병동에 수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빌리들은 처녀 귀신이 아니라 지젤의 동료 정신병자들이며, 빌리를 이끄는 미르타는 수간호사로 설정되어 있다. 인간 심연의 문제를 전통에서 동떨어진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마츠 에크는 효과적인 무대장치와 무용수들의 거친 움직임, 누드를 마다하지 않는 도발적인 해석으로 놀라움을 안겨준다. 1982년에 초연된 작품을 5년 후 TV용으로 촬영한 영상물이며 에크의 아내인 안나 라구나가 충격적인 지젤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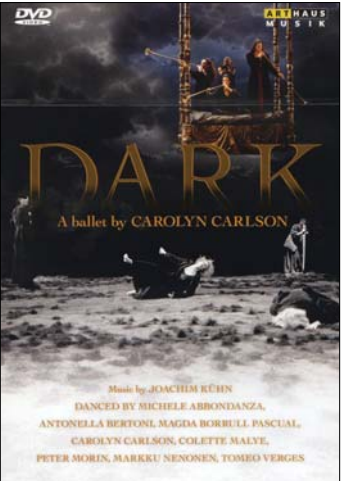


Arthaus DVD 101 481

브루크너: 교향곡 7번

최신 고화질 영상에 담긴 브루크너의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

5번과 9번에 이어서 세 번째로 선보이는 벨저-뫼스트/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브루크너 교향곡 시리즈 DVD. 앞서의 두 DVD가 작곡가와 관련 깊었던 두 장소(성 플로리안 성당-5번, 빈 무지크 페라인-9번)에서의 콘서트를 담았던 것과 달리, 이번 7번은 2008년 9월 이들의 본거지인 클리블랜드의 세브란스 홀에서 펼쳐졌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하였다. 브루크너의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손꼽히는 이 7번은 작곡 도중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바그너의 사망소식을 전해 듣고 뜨거운 추념의 마음을 담아내었던 장대한 아다지오 악장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정상급 오케스트라들 중에서도 가장 유럽적인 사운드를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는 브루크너의 작품이 요구하는 장중하면서도 부드러운 음향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회장으로 손꼽히는 세브란스 홀의 우아한 인테리어와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장엄한 브루크너의 교향악이 시각과 청각을 양쪽 모두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것이다.



Arthaus DVD 101 382

캐롤린 칼슨: 다크

신비주의적 환상으로 유명한 여류안무가 캐롤린 칼슨의 문제작

캘리포니아 태생의 캐롤린 칼슨은 미국에서의 안정된 활동을 박차고 1970년대 초반에 유럽으로 진출하여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한 여류안무가다. 그녀의 조상은 핀란드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그녀의 작품은 풍부하면서도 어두운 북유럽적인 환상을 담아내는 것처럼 보이곤 한다. 본 영상물은 1988년 파리에서 초연된 그녀의 대표작의 하나를 이듬해에 TV용으로 압축(63분)하여 촬영한 것이다. 〈다크(Dark)〉라는 타이틀이 이 작품의 분위기를 함축한다. 한편으론 여덟 명의 등장인물의 내적인 격통과 좌절을, 한편으론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촌의 문제를 고발하는 것이다. 무대장치와 간결한데도 그 바닥을 풀이 말라버려 사막화되어가는 땅처럼 묘사한 것은 그 때문이다. 출연자들의 의상과 연기는 〈다크〉라는 제목과 어울려서 흑마술처럼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인 요정신화의 이미지를 풍기기도 한다. 캐롤린 칼슨은 즉흥적인 연주와 춤의 결합에 관심이 많다. 〈다크〉의 음악은 그녀와 동년배인 독일 출신의 요아힘 쾨이 즉흥성에 입각한 피아노 연주로 직접 해결했는데, 믹싱 콘솔을 다루는 전자음악 전문가를 합류시켜 독특한 현대성을 연출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무용의 개념을 뛰어넘은 새로운 장르로 봐야 할 문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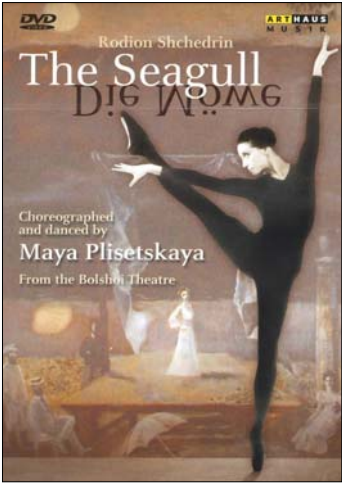
Arthaus DVD 101 467

JS 바흐: 푸가의 기법 (관현악버전)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바흐 최후의 걸작으로 장식한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창립25주년 기념 DVD

1984년 동베를린의 사우스필하우스에서 창립 콘서트를 연 이후 지금까지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는 독일 시대악기 분야를 대표하는 연주단체로 자리매김해왔다. 하모니아 문디를 통해 발매했던 수많은 레코딩을 통해 국내 고음악 애호가들에게도 크게 사랑받고 있는 이 단체가 자신들의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DVD를 선보였다. 베를린 상수도 공급원의 낡은 펌프장을 현대적 시설의 연주회장으로 개축한 라디알시스템 V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바흐 최후의 걸작인 '푸가의 기법' BWV1080을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단원들이 직접 편곡한 버전으로 연주하였다. 미완성작으로 남아있는 이 걸작은 음악역사상 최고의 푸가 장인이었던 바흐가 대위법에 대한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했던 위대한 작품이다. 연주악기를 명시하지 않은 탓에 오르간, 하프시코드, 오케스트라, 현악사중주 등의 다양한 연주형태로 연주되고 있는데, 본 DVD에서는 각 콘트라퐁투스들의 성격에 따라 현악사중주, 현악합주, 관악합주, 오르간, 오케스트라 등으로 다양하게 연주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이 심원한 작품에 보다 쉽게 다가가게끔 배려하였다.



Arthaus DVD 101 477

플리세츠카야: 갈매기

위대한 발레리나 마야 플리세츠카야가 직접 안무하고 춤춘 체홉의 명작

마야 플리세츠카야(1925~)는 러시아의 볼쇼이 발레단의 프리마 발레리나로 20년 넘게 전성기를 누린, 팔십 세가 넘은 지금도 발레계의 화제에서 벗어나지 않은 20세기 최고의 발레리나 중 한 사람이다. 최고의 카리스마를 풍기는 무용수이자 사상적으로는 소비에트 정부의 압력에도 굴복하고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예술에만 몰두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녀는 직접 안무하고 춤추기도 했는데, 일곱 살 연하인 그녀의 남편 로디온 셰드린이 소비에트를 대표하는 뛰어난 작곡가로서 직접 곡을 써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다. <갈매기>는 안톤 체홉의 4막 희곡을 2막의 발레로 만든 플리세츠카야의 역작이다. 애정의 고리의 역여 들어간 다섯 명의 등장인물들의 사랑은 정상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서로 엇갈려 있어서 남자주인공 콘스탄틴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치닫는다. 플리세츠카야는 여자주인공인 니나 역과 상징적인 갈매기 역을 동시에 춤춘다. 상대역 콘스탄틴으로는 볼쇼이 발레 역사상 가장 우아한 발레리노로 꼽히는 알렉산더 보가티료프가 나섰다. 러시아 문학의 분위기가 발레에 고스란히 전이된, 플리세츠카야 스타일의 드라마 발레로서 매력적이다. 1980년 볼쇼이 발레 실황.

[보조자료]

○ [줄거리] 젊은 작가 지망생 콘스탄틴은 유명 여배우인 어머니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 또한 그녀가 유명 작가인 트리고린과 열애 중이라 더욱 심기가 불편하다. 콘스탄틴은 자신이 사랑하는 니나가 트리고린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 분노를 이기지 못해 죽은 갈매기를 그녀 발밑에 던진 채 사라져 자살을 시도하나 실패한다. 콘스탄틴을 짝사랑하는 마사가 있지만 소용이 없다. 어머니와 트리고린이 떠나는 날 콘스탄틴은 모친과 화해를 시도하나 결국 싸우기만 한다. 트리고린은 니나와의 아쉬움으로 좀 더 머물 것을 제안하나 이를 알아 챈 모친은 그를 다시 자기 품 안에 넣는다. 그러나 니나와 트리고린은 몰래 모스크바에서 만나기로 밀약한다. 2년 후, 콘스탄틴은 유명작가가 되고 사랑에 실패한 니나가 거의 폐인이 되었다는 소문만 들린다. 트리고린은 다시 어머니와 애인 관계를 유지하며 니나의 존재를 지운지 오래다. 그곳에 우연히 들른 니나는 콘스탄틴을 만나지만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트리고린의 목소리에만 관심을 가진 채 콘스탄틴의 사랑을 거부하며 떠나버리고, 상심한 콘스탄틴은 권총 자살한다.



DVWW-OPFORZA

베르디: 운명의 힘

우리 시대에 기대할 수 있는 최고 캐스팅이 열연한 <운명의 힘>

<운명의 힘>은 베르디 중기의 걸작이다. 벨칸토를 계승하는 명쾌한 오페라를 작곡하던 베르디는 50세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인간군상의 비극을 그 누구보다도 무거운 시선으로 관찰한다. 잉카 제국의 후예인 돈 알바로(테너, 후작의 딸인 연인 레오노라(소프라노)는 물론 부친의 복수를 한다며 이들을 추적하는 일종의 악역 돈 카를로(바리톤)조차도 베르디가 보기에는 운명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불쌍한 인간들이다. 베르디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분위기의 명작으로 평가받는 이 오페라를 위해 최고의 출연진이 피렌체 시립 가극장에 모였다. 전성기를 맞고 있는 마르첼로 조르다니(돈 알바로)는 도밍고가 격찬한 정통 이탈리아 테너이며, 비올레타 우르마나(레오노라)는 메조소프라노에서 출발한 가수답게 드라마틱한 열정을 비극적인 분위기로 전달하는데 최고다. 카를로 구엘피(돈 카를로)의 신음하는 듯 내뿜는 깊은 내성의 악마적 표현력은 현역 최고라 할 수 있다. 이런 황금 트리오를 피렌체 시립가극장의 터줏대감 주빈 메타가 확고한 음악성으로 리드하는 가운데 격조 높은 연출로 호평을 받는 니콜라스 요엘이 전통에 입각한 감동적인 무대를 창조해냈다. 2007년 최신 실황.

[보조자료]

○ <운명의 힘>의 초판과 개정판이 있는데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본가가 피아베에서 기술란초니로 변경되면서 리브레토의 상당한 수정이 있었다. 예컨대 3막 2장에서 초판에는 결투가 벌어지지만 개정판에서는 순찰병이 제지한다. 4막 피날레의 차이는 더 크다. 초판에서는 운명적으로 다시 마주친 알바로와 레오노라의 짧은 이중창에 이어 오빠의 칼에 찔린 레오노라가 알바로 품에서 죽기 전에 부르는 아리아가 있고 돈 알바로도 절벽에서 투신하여 세 주인공 모두 죽는다. 개정판에서는 돈 알바로의 독백 후 레오노라가 카를로의 칼에 찔려 비명을 지르고 마지막에 수도원장, 레오노라, 알바로가 3중창을 부르며 알바로는 죽지 않는다. 수도사가 세상을 저주하며 자살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탓인데, 요즘은 개정판이 대세지만 피날레만큼은 초판이 더 감동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곡의 변경이다. 초판에서는 3분 정도의 짧은 곡이었지만 개정판에서는 극중의 주요 선율을 망라한 포푸리 형태로 7분이 넘는 멋진 서곡이 되었다.

○ 전통적인 오페라에서 테너의 역할은 보통 젊고 정이롭지만 아직 덜 성숙한 남자로서 성급한 행동으로 비극을 초래하곤 한다. 그러나 베르디의 오페라에서는 중기로, 후기로 갈수록 테너의 캐릭터가 원숙하게 바뀌어간다. <운명의 힘>의 주인공 돈 알바로도 예전의 테너와는 다른 성숙한 남자로서 묘사되어 있다. 이 오페라의 테너 역이 특별히 어려운 이유다.



Dynamic DVD

www.dynamic.it



Dynamic DVD 33588

레오: 알리도로

바로크 오페라의 귀중한 유산, 정통 나폴리 스타일의 희극 오페라

음악사 교과서에서 이탈리아 희극 오페라의 시초는 진지한 오페라 세리아의 막간에 공연되던 오페라 부파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초기의 부파는 등장인물의 수도 적고, 길이도 짧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화를 위한 공식일 뿐 부파의 전형에서 벗어난 희가극도 있었다. 바로크 시대에 나폴리에서 활동한 레오나르도 레오의 것도 그러하다. 이탈리아 전통 익살극인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영향이 살아있는 <알리도로>의 경우 2시간 40분이 소요되고 등장인물도 8명이나 된다. 1740년에 초연되었으니 오페라 부파의 효시라는 페르골레지의 <마님이 된 하녀>보다 겨우 7년 후인데도 이렇게 다른 것이다. 주인공 루이지(알리도로)는 파우스티나와 맺어지고자 아스카니오라는 하인으로 행세한다. 이런 가장(假裝)이야말로 당시 희가극의 중요한 모티브다. 이들과 대조적인 서민적 커플인 체차와 메오, 희극적 남성역인 늙은 잔그라치오와 그의 아들 돈 마르첼로도 등장한다. 잔그라치오의 조카 엘리사는 알리도로를 아스카니오로 알고 사랑한다. 이런 얽히고설킨 관계가 점점 더 꼬여가다가 재미있게 풀리는 것이 희가극의 묘미다. 본 영상물은 2008년 레지오 에밀리아 시립극장 실황으로 동 작품의 세계최초 녹음이다.

[보조자료]

○ 레오나르도 레오(1694~1744)는 페르골레지, 피친니, 옴멜리 등의 작곡가에게 큰 영향을 미친 바로크 시대 나폴리 악파의 대표적 작곡가이다. 나폴리에서 작곡을 공부했고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가 세상을 떠나자 그 뒤를 이어 당대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던 궁전교회의 수석연주자가 되는데, 이때부터 나폴리 예수 그리스도 음악원의 수석연주자 프란체스코 두란테(1684~1755)와 경쟁관계가 되었다. 두 사람은 작곡 스타일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레오가 17세기 바로크 양식에 기본을 두었다면 두란테는 기본적으로는 레오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멜로디를 강조하면서 반주를 간소화했다. 즉 보다 근대적인 방향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레오의 제자로는 니콜로 피치니가, 두란테의 제자로는 조반니 페르골레지가 유명하다. 한편 레오나르도 레오는 나폴리 오페라 양식을 형성했으며 그중에서도 희가극으로 유명했다. 희가극 중에서도 나폴리 방언으로 쓰여진 작품들이 유명하다. 그만큼 나폴리라는 지역에 뿌리를 둔 음악가인 것이다. 종교음악 분야에서도 명성이 있었고 요즘에는 첼로와 현악기를 위한 협주곡 6곡도 주목을 받고 있다.

Tony Palmer's Film DVD

www.tonypalmerdvd.com



TPDVD 159

미스 르네 플레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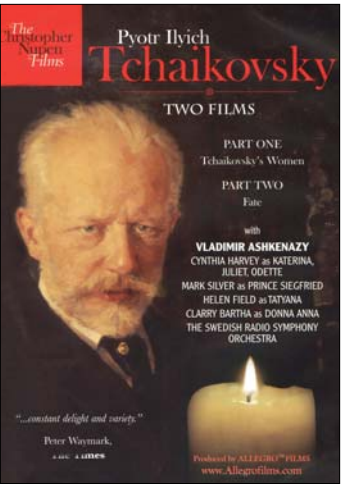
우리 시대 최고의 디바 르네 플레밍의 모든 것

우윳빛의 풍요로운 음성과 지극히 우아한 자태로 관객을 사로잡는 르네 플레밍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출신이다. 르네라는 프랑스 식 이름이 붙어있지만 사실 체코 이주민의 후손이고, 부모는 둘 다 음악교사였다. 플레밍 역시 교사가 되는 길을 가다가 뒤통에 줄리어드에 진학했고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독일에서도 공부했다. 1990년대에는 풍요롭고 부드러운 그녀 음성의 진가를 알아본 게오르크 솔티의 인정을 받아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다. 이 영상물은 우리 시대의 가장 사랑 받는 디바의 한 사람인 플레밍을 자연스럽게 관찰한 기록이다. 이런 자연스러움이야말로 음악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감독인 토니 팔머의 특기다. 유년 시절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자료는 물론이고 어린이들, 911 테러 희생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위해 노력하는 인간적인 면모까지 무대 안팎의 자연스런 모습을 담고 있다. 베르디의 <레퀴엠>을 녹음하고 <오텔로>를 리허설하는 장면을 위시하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모차르트, 코른골트, 라흐마니노프, 번스타인의 곡을 들을 수 있으며, 파바로티, 도밍고, 호보로스토프스키, 게르기에프, 티보데 등 우리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들과 함께 한 모습을 만난다.



Nupen Film DVD

www.allegrofilms.com



Nupen Films A 10CND

차이코프스키: 두 개의 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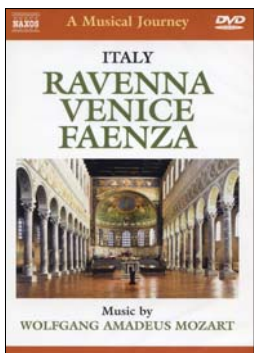
러시아 최고의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에 대한 두 편의 인상적 기록

크리스토퍼 누펜은 세고비아, 메뉴인, 밀시타인, 뒤 프레, 아쉬케나지, 필만, 카신 등 명연주자에 대한 인상적 기록을 남긴 일급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그가 이번엔 작곡가를 선택했다. 15세 무렵부터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다. 요즘엔 차이코프스키의 우울한 내면을 동성애에서 찾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누펜은 반대로 접근한다. '차이코프스키의 여인'이란 주제로 어린 나이에 잃은 모친, 억지 결혼상대 안토니나 밀류코바, 13년간 후원한 폰 메크 부인은 물론 작품에 등장하는 카테리나(폭풍), 줄리엣, 백조 오데트, 리미니의 프란체스카, 타치아나(예프게니 오네긴), 심지어 차이코프스키가 사랑한 작곡가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에 나오는 돈나 안나까지 그의 삶과 연결시켜 70분에 걸쳐 탐구한 것이다. 누펜은 이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 '운명'이란 86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추가하여 교향곡 제4번부터 5번, 6번에 이르는 운명의 사슬을 추적한다. 풍부한 사진자료가 제공되며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가 지휘하는 스웨덴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굉장한 연주를 들려준다. 일세를 풍미했던 미모의 발레리나 신시아 하비가 카테리나, 줄리엣, 오데트로 나선 점도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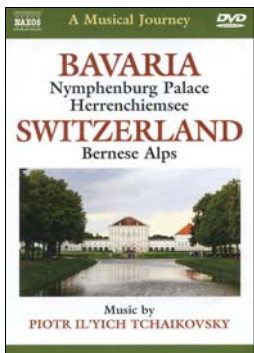


Naxos 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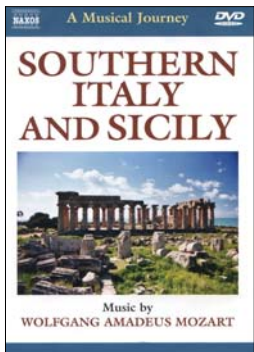
www.naxos.com



Naxos DVD 2.110237



Naxos DVD 2.110246



Naxos DVD 2.110252

음악여행 시리즈: 이탈리아 라벤나, 베니스, 파엔차

라벤나의 모자이크 공방, 파엔차의 마줄리카 공방의 속모습

패션과 디자인의 나라 이탈리아의 숨씨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세기를 거쳐 지역별로 다양한 공방(工房)이 발전하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남다른 감각이 형성된 것도 중요한 비결의 하나다. 그중 북동부에 위치한 파엔차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마줄리카'는 고장 이름을 따서 파이앙스로 불리기도 한다. 파엔차의 자연풍광 대신 온통 형형색색의 마줄리카로 가득한 이곳 공방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본다. 인근의 라벤나는 비잔티움 풍의 모자이크로 유명하다. 한때 비잔틴 권역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가 남아있는 것이다. 돌을 잘게 쪼개 작업하는 그 현장으로 안내한다. 한편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서는 산마르코 성당의 그 유명한 바실리카를 구경하고 이곳의 가연 축제와 그 마스크들을 살펴본다.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두 곡의 영롱한 아름다움은 이탈리아 세 도시가 자랑하는 문화유산의 색채적 매력과 잘 어울린다.

음악여행 시리즈: 바바리아, 스위스

스위스 베르네제 알프스와 독일 바바리아의 님펜부르크 궁전

알프스는 크게 동부 알프스와 서부 알프스로, 다시 동부는 셋, 서부는 열한 개 구역으로 나뉜다. 스위스의 베르네제 알프스는 서부에 속하며 산악인을 뜰게 만드는 도전적인 구역이다. 인근 1600미터 해발에 위치한 외시넨 호수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스위스와 이탈리아 국경에 위치한 뿔 모양의 마테호른은 알프스를 대표한다. 여기까지 차이코프스키의 웅장한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이 드라마틱한 풍광과 조화를 이룬다. 독일 바바리아(바이에른)의 님펜부르크 궁은 파리의 베르사이유 궁, 빈의 쇤브룬 궁과 더불어 거대한 규모와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 곳이다. 끝으로 바바리아에서 가장 큰 호수 키엠제로 향한다. 호수의 섬에는 바그너를 후원한 루트비히 2세가 건축한 헤렌키엠제 성이 있다. 바바리아의 풍광은 차이코프스키의 <그리운 고향의 추억>과 함께 한다. 원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곡인데 글라주노프가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해 편곡했다.

음악여행 시리즈: 남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세르타의 화려한 궁전과 시칠리아 섬의 옛 유적들

이탈리아 남부는 아직도 농업지역이며 밝은 태양과 낙천적 기질로 대표되는 라틴 문화에는 더 어울리는 곳이다. 나폴리 위쪽에 위치한 카세르타는 거대한 팔라초 레알레로 유명하다. 이탈리아 북부는 도시국가로 발달하여 이런 왕궁이 없지만 팔라초 레알레는 나폴리 왕국과 시칠리아 왕국의 궁전으로 축조되었다. 특히 다단계 폭포수처럼 물이 흘러내리는 정원은 장관이다. 집집마다 빨래를 널어 말리는 나폴리 시내와 고대유물 박물관도 돌아본다. 시칠리아 북쪽의 군도 중에서 가장 큰 리파리의 바닷가 풍경에 이어 시칠리아 본섬으로 건너가면 일단 주도인 팔레르모부터 살펴야 한다. 섬의 패권을 두고 각축을 벌인 여러 문화의 흔적과 지중해 해안도시의 정취가 고스란히 보관된 곳이다. 팔레르모 인근의 몬레알레의 성당의 모자이크도 불만하다. 한편 시칠리아는 한때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였으므로 몇몇 신전의 잔해가 남아있는데 그중에는 아테네보다도 보관상태가 나은 유적도 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1번과 제24번이 예뻐 안도의 피아노로 연주된다. 라틴 음악의 정서를 담고 있는 모차르트의 명료적 특징이 남부 이탈리아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BR Klassik DVD

www.br-klassik.de

BR-Klassik은 독일 최정상급의 오케스트라인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을 거느리고 있는 바이에른 방송국에서 설립한 자체 레이블. 이시대 최고의 거장 마리스 안손스가 지휘하는 영상물.

하이든: 하모니 미사, 교향곡 88번, 신포니아 D장조

마를린 하르텔리우스(sop)/ 유디트 슈미트(alt)/ 크리스티안 엘즈너(te)/ 프란츠 요제프 젤리히(bass)/ 마리스 안손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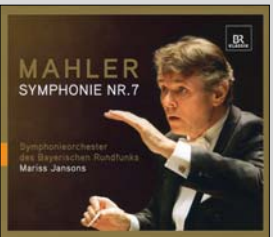
하이든의 서거 200주기를 기리는 마리스 안손스의 최신 영상

바이에른 방송국의 자체 레이블인 BR-Klassik을 통해 선보이는 DVD로, 현재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 이 시대 최고의 지휘자 마리스 안손스의 최근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2008년 10월 7일 발트자센의 유서 깊은 대성당에서 펼쳐졌던 콘서트 상황을 담은 것으로, 하이든의 작품만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하이든은 모두 14편 정도의 미사를 완성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에스테르하지 궁전에서의 임무를 끝내기 직전에 완성한 6편의 미사 연작이 특히 완성도가 높다. 하모니미사는 그 중 한 작품으로, 교향곡들로 다져진 그의 관현악법과 이탈리아 칸타타들로부터 체득했던 섬세한 성악스킬이 성공적으로 결합된 작품으로 손꼽힌다. 피라 교향곡 연작의 하나인 교향곡 88번과, 원래 오페라서곡을 목적으로 작곡했으나 후일 교향곡 53번의 마지막 악장과 62번의 1악장으로 전용되었던 신포니아 D장조가 이날 함께 연주되었다.

BR-Klassik Best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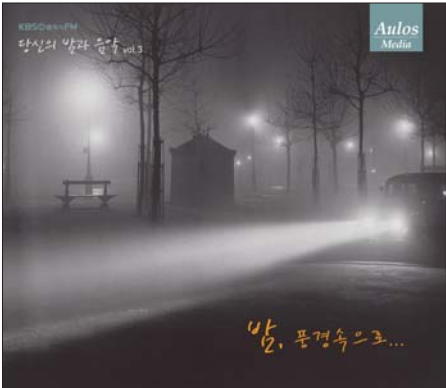
403571900100 [Hybrid-SACD]
브루크너:
교향곡 7번
마리스 안손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403571900101 [Hybrid-SACD]
말러:
교향곡 7번
마리스 안손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403571900701 [Normal CD]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1번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18번
마르트 아르헤리치(pf)
세이지 오자와, 오이겐 요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AMC2-104

KBS클래식FM [당신의 밤과 음악 vol.3]
밤, 풍경속으로...

마음을 길어 올리다...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Vitae Lux에서 레슬리 가렛의 목소리로 듣는 'Let it be' 까지,
밤 풍경을 비추는 한 줄기 불빛처럼 평화와 안식의 불빛이 되어줄 이 음악들을
당신의 밤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수록곡]

01.
프로드 알네스/ 삶의 빛
Ole Edvard Antonsen, trumpet
02.
오스카 메리칸토/
그대는 아직도 저 성가를
기억하는가
Jorma Hynninen, bariton/
String Quintet/ Tapiola Choir
03.
쇼팽/ 왈츠 B♭ minor Op.69-2
Pavlos Hatzopoulos, piano
04.
바하/ 오보에 협주곡 D단조
BWV1059 2악장 Largo
Thomas Indemuhle, oboe/
English chamber Orchestra/
Simon Preston, cembalo
05.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D단조
Op.49 2악장 Andante con
molto tranquillo
Gould piano Trio
06.
그리고/ 페르귄트 모음곡 중
솔베이그의 노래
The Netherlands guitar trio

마음을 길어 올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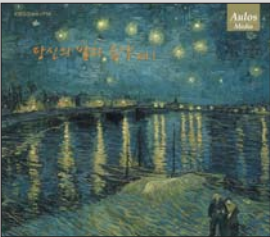
밤이 긴 나라에는 어김없이 신화와 전설이 발달되어 있다.
이야기 없이, 음악도 없이 견디기에는 밤은 너무 길고 쓸쓸하다.
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멀리서 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고여 있는 나의 이야기다.
내 것이면서도 나와 서먹했던 이야기들,
깊은 우물처럼 두레박을 내려야 건져 올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음악은 당신의 마음에 내려지는 두레박,
첨벙, 음악 한 곡이 당신의 우물에 내려질 때, 잊고 있던 이야기가 떠오를 것이다.
또 한 번 두레박이 내려질 때 잊고 있던 시간이 떠오를 것이다.
다시 한 번 두레박이 내려질 때에는
서먹해진 나에게 조금 다가왔은 나를 발견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두레박을 건져 올릴 때면 퍼낸 만큼, 덜어낸 마음만큼 출가분해진 나를 발견할 것이다.

루이제 린저는 그녀의 대표작 '생의 한 가운데'에서
주인공 '니나'의 영혼을 빌려 이렇게 썼다.
'우리에게 밤이 필요한 것처럼 비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루이제 린저 와 '니나'의 영혼을 빌려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밤이 필요하고, 비밀이 필요하듯, 음악이 필요하다'고...

가장 자유로운 상태를 '출가분해'이라고 표현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한 장의 종이처럼 출가분해된 밤을 위해 이 음악들을 바친다.
트럼펫이 밤의 문을 열어주고, 다정한 목소리가 깊은 잠을 위해 커튼을 내려줄 것이다.

〈당신의 밤과 음악〉제작팀



AMC2-103

KBS클래식FM [당신의 밤과 음악 vol.1]

잊혀지는 것과 잊혀지지 않는 것...
잊혀지는 것과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이루고 있습니다.
밤의 휴식, 밤의 위로가 없었다면 이 복잡하고 힘겨운 세상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한 묶음의 심표가 머리맡에 놓여있는 밤, 바순의 따뜻한 음으로 시작되는
'당신의 밤과 음악'의 시그널을 들으면 먼 여행에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이 음반을 '다시' 바칩니다.

****이전에 발매되었던 '당신의 밤과 음악' 2CD에서 첫번째 음반만으로 구성 재발매**

07.
브루흐/ 바이얼린 협주곡 1번
G단조 Op.26 2악장 Adagio
Pamela frank, violin/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Sir Neville Marriner, cond

08.
러시아 로망스/ 아무르 강의 물결
Park Kyung Suk, cello/
Nina Kogan, piano

09.
깊고, 강하고 부드럽게
Skruk & Nymark collective

10.
모차르트/ 환타지 D단조 K397
Annette Topel, piano

11.
베토벤/ 교향곡 7번 A장조 Op.92
2악장 Allegretto
The Royal Philharmonic
Orchestra/
Barry Wordsworth, cond

12.
테오도라키스/
발레음악 '알렉시스 조르바'
- Madame Hortense
Hungarian State Orchestra/
Mikis Theodorakis, cond

13.
렛 잇 비
Lesley Garrett, soprano

프로듀서에게는 '나의 집'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내게는 '당신의 밤과 음악'이 그런 프로그램이다.
나는 '당신의 밤과 음악'이라는 집에 세 번 깃들었다.
첫 만남은 93년 봄.
Bill Douglas의 Hymn을 시그널로 정하면서 첫 동지를 틀었다.
'Hymn'은 16년째 '당신의 밤과 음악'을 지키고 있는 '그리운 초인종' 같은 음악이다.
두 번째 만남은 99년 가을. 'FM 가정음악'의 <4계시리즈>를 마치고
친정집 같은 '당신의 밤과 음악'의 초인종을 다시 눌렀다.
이 무렵엔 김미라 작가와 호흡을 맞추었던
'밤의 우체국'이라는 코너가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 코너를 받아 적으며 텔레파시를 끊임없이 보내주던 청취자들은 잘 지내시는지...
그리고 2007년 가을, 나는 오랜 방향 끝에 솔베이그의 품을 찾아 돌아온 페르귄트처럼
'당신의 밤과 음악'에게로 돌아왔다.

레코드실에서 음반들을 고르고 있으면 요리를 잘하는 주부가 가족을 위한 식탁을 차리듯 행복했고,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할 때면 내가 먼저 위로를 받곤 했다.

나를 위로해 주었던 그 음악들을 모아 '당신의 밤과 음악' 3집을 내어 놓는다.
첫 음악인 'Vitae lux'의 아스라이 들려오는 트럼펫 소리가 휴식의 문을 열어주기를...
그리고 마지막 곡인 'Let it be'의 노랫말처럼
그대로 삶이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할 수 있기를...
밤의 음악, 휴식의 음악이 내미는 손을 애청자 여러분이 잡아주시리라 믿는다.

프로듀서 김혜선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ACK

코드링 (40초)

코드링 (60초)

Rodgers: Do-Re-Mi (도레미 송)	##7168011	##7268011
Bernstein: West Side Story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7168040	##7268040
Chabrier: Espana (에스파냐)	##7168012	##7268012
Verdi: La Traviata - Drinking Song (축배의 노래)	##7168013	##7268013
Brahms: Cradle Song (자장가)	##7168014	##7268014
Paganini: La Campanella (라 캄파넬라)	##7168015	##7268015
Piazzolla: Libertango (리베르탱고)	##7168016	##7268016
Offenbach: Can-Can (캉캉)	##7168017	##7268017
Strayhorn: Take the 'A' Train	##7168018	##7268018
Caravan	##7168019	##7268019
Un bel di vedremo (어느 개인 날)	##7168020	##7268020
Anderson: Blue Tango (블루탱고)	##7168021	##7268021
Anderson: Belle of the Ball	##7168022	##7268022
Anderson: Chicken Reel	##7168023	##7268023
Fiddle-Fiddle	##7168024	##7268024
Sleeping Beauty: Waltz (잠자는 숲속의 공주:왈츠)	##7168025	##7268025
Swan Lake: Waltz (백조의 호수: 왈츠)	##7168026	##7268026
The Nutcracker: March (호두까기인형: 행진곡)	##7168027	##7268027
The Nutcracker: Dance of the Sugar Plum Fairies (호두까기인형: 사탕요정의 춤)	##7168028	##7268028
The Nutcracker: Chinese Dance (호두까기인형: 중국인형의 춤)	##7168029	##7268029

이용방법 (How to use) >>

곡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선택

예) 도레미 송 60초 컬러링 이용방법

##7268011 + 통화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40초-1,200원 | 60초-1,300원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ACK

일반 코드링 (40초)

통 코드링 (60초)

Vivaldi: The 4 Seasons Violin Concerto Op.8 No.3 Autumn - I. Allegro	##7170133	##7270133
Bolling: Baroque And Blue	##7170134	##7270134
Bolling: Javanaise	##7170135	##7270135
Bolling: Irlandaise	##7170136	##7270136
Bolling: Amoureuse	##7170137	##7270137
Bolling: Jazzy	##7170138	##7270138
Garnier: Misty	##7170139	##7270139
Albeniz: Suite Espanola No.1 Op.47 - Cuba (스페인 모음곡 1번 - 쿠바)	##7170140	##7270140
Berlin: I'll see you in Cuba	##7170141	##7270141
Damare: Le Merle Blanc Op.161 (다마레: 하얀 티티새)	##7170142	##7270142
Faure: Berceuse Op.16 (포레: 자장가)	##7170143	##7270143
Piazzolla: Histoire Du Tango - Bordel 1900 (탱고의 역사 - 선술집)	##7170144	##7270144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667 'Trout' - Theme with Variations - Allegro Giusto	##7170145	##7270145
Over The Rainbow	##7170146	##7270146
We'll Meet Again	##7170147	##7270147
La Mer	##7170148	##7270148
Williams: Star Wars - Main Title	##7170149	##7270149
Mr. Lee	##7170150	##7270150
Feaster: Sh-Boom	##7170151	##7270151
Berry: Maybelline	##7170152	##7270152

이용방법 (How to use) >>

곡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 선택

예) '다마레: 하얀 티티새' 통 컬러링(60초) 이용방법

##7270142 + 통화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SK Telecom 이용고객에 한하여 사용가능.

40초 - 1,200원
60초 - 1,300원



러시아의 용솟음치는 리듬으로 장식된 여름밤의 음악축제

베를린 필의 2009년 발트뷔네 콘서트

예핌 브론프민 | 사이먼 래틀 | 베를린 필하모닉



Medici Arts DVD 2057758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발레

매년 여름 베를린 필은 베를린 외곽 숲속의 야외공연장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더불어 성대한 공개 콘서트로 한 시즌을 마무리한다. 빈 필의 신년음악회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사랑받고 있는 발트뷔네 콘서트가 바로 그것이다.

2009년 6월 21일에 있었던 본 콘서트는 '러시아 리듬'이라는 주제로 음악감독 사이먼 래틀이 직접 지휘봉을 잡았다.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1막 발레로 시작된 본 콘서트는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3번과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라는 막강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영화 '사인'으로 한층 유명세를 더한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3번은 피아노협주곡 사상 최고의 난곡 중 하나로 악명 높은 작품으로,

이미 음반을 통해 이 작품의 뛰어난 해석가로 명성을 쌓은 우즈베크 출신의 기교파 피아니스트 예핌 브론프만이 눈부신 건반위의 아크로바틱을 펼쳐나간다.

'봄의 제전'에서는 래틀의 천부적인 리듬감각과 베를린 필의 뛰어난 연주역량이 빛을 발한다.

항상 이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링케의

'Berliner Luft'에서는 오랜만에 타악기 주자로 되돌아간

래틀의 재미있는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절찬리
판매중

〈아울로스뉴스〉 2009년 10, 11월호
통권 제 40호 발행 : 2009년 12월 5일
발행인 : 임용욱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표지사진

이 달의 주목할만한 DVD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